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오피너
OPEN 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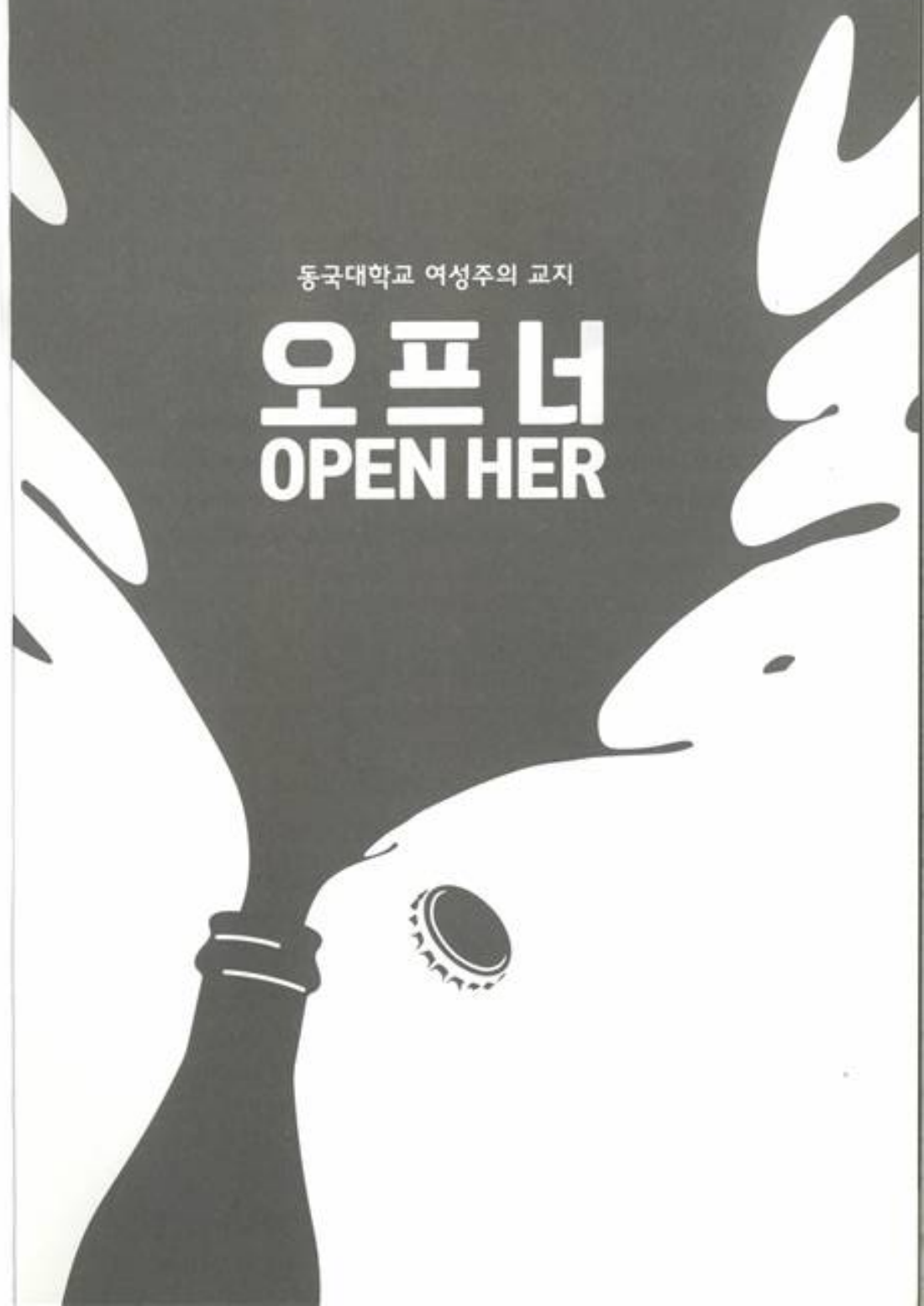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오피너
OPEN HER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오픈너 OPEN HER



| CONTENTS |

0

04 오르너 편집장의 인사

3

기획 2 - 2016 여성혐오

- 43 들어가며
- 44 분노한 남자들
- 50 조심하고 지켜야 할 여성은 없다
- 56 시스터후드 라이딩

1

특집 - 대학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 07 신입생에게 보내는 다분히 정치적인 글
- 10 [단독] 학생화실에서 이런 일이?
- 15 학생사회 다시보기
- 22 우리는 어떠한 학생회를 기대할 수 있나

4

대중문화비평

- 61 [미생] 여성들의 디스토피아
- 67 2016년의 한국, 2076년의 디바

2

기획 1 - 패밀리즘 Familism

- 29 들어가며
- 30 내가 아직도 니 엄마로만 보이니?
- 37 B와 D 사이의 삼삼함

5

72 편집후기

오프너 편집장의 인사

편집장 · 임은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저와 오프너 친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 담론이 폭발하고 가부장제 사회에 반기를 드는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그에 비해 동국대학교 안에서의 현실은 우리의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2016년에 발생한 교수 성폭력 사건과 교수 기숙사 난입 사건, 2017년 3월에 공론화된 ○○과 남독방 사건 외에도 강의실에서, 학생화실에서, 축제에서, MT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까지 더하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일일이 나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공론화된 것 외에도 보이지 않고 사라져간 성폭력 사건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계속해서 분노하고 저항하고자 교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글 몇 개로 현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은 누군가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이야기가 학내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프너에게 있어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자 앞으로 오프너가 가지고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발간되었어야 할 교지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많이 늦어지게 되어 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연된 만큼 많이 지쳤을 오프너 친구들에게도 고생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순간이 많았으나 이 책은 우리에게 현실의 도피처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우리의 기대와 분노로 채워진 이번 교지가 당신에게 의미있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본 누군가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현실에 경악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 보낼 수도 있지만 당신은 공감하고 같이 분노할 수 있길!

2017. 04. 05.

특집 대학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신입생에게 보내는 다분히 정치적인 글

당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오픈너 일동 드림

각자의 고생담 또는 성공담을 한아름 안고 이제 막 동국대에 도착한 당신은 얼마나 정치적인 니까. 곧 이 남산 아래에서 연애를 기다리는 당신은 얼마나 정치적인 니까. 이는 서울에 있는 4년 제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으니 지방대를 다니는 누군가보다, 대학 밖의 테두리에 있는 누군가보다 당신이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봄에 취해 연애를 하고 싶은 당연한 욕구는 그 욕구를 마음 편히 드러내기 어려운 성소수자의 그것이나 연애 또한 스펙과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자발적 연애포기자들의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새내기'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대학에서의 일정 시기를 뜻할 뿐입니다. 새내기라서 술을 더 먹어야 하고, 새내기라서 잘 알지 못하는 선배들에게 먼저 인사해야 하고, 새내기라서 동기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새내기라서 학점 계산 안 하고 수업 듣고, 새내기라서 비교적 과실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새내기라서 내일 걱정 없이 술 마실 수 있는 날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도 사람마다, 상황마다 제각각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고 맨 처음 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연애 못하면 패배자인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물질적 부족과 정서적 패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새내기일 수 있는 것은 이제 막 입학했다는 사실에 덧붙여 당신을 맞이할 선배가 있고, 당신이 배울 학문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당신이 학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당신이 당면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삶과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학, 당신의 연애 그리고 곧바로 현실이 될 당신의 취업 준비와 졸업까지 대학에서 당신의 삶은 비단 당신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며 당신의 의지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 여부, 정체성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이 대학에서 배우고 어울렸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성별, 나이, 출신지역, 성적지향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은 때로는 차별이고 때로는 폭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권력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당신이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정치가 신문물 펼쳐면 맨 먼저 나열된 기사 내용 같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앉아서 하는 것이 정치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편익을 잘하는 사람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정치는 비단 의회와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 구석구석에서 당신이 당신의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관념, 실천 등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를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내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지금 이 지점에 있는가를 고민하다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즐겁게 떠돌고 놀았던 새터에서 나를 즐겁게 해준 선배에게 성폭력 당한 동기가 보일 것이고, 내가 매일 찾는 3층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대비 고단함이 보일 것이고, 내가 늦었다고 뛰어올랐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휠체어 탄 친구가 보일 것입니다. 내가 장학금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등록금이 사실 학교의 돈생기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정관념이 깨지고, 세계관이 변합니다.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그 사실을 인정하면 당신의 대학생활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 내려가고 있으니 이 글 또한 정치적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정치적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자신의 철학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얼마나 정치적인지. 인지하지 않았던 것을 인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정치이며, 인지하지 않았던 것을 계속 인지하지 않는 것도 정치입니다.

혹시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기대하며 대학에 오셨나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고, 들추고, 밝히며 대학 생활을 채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과정이 쉽지 않기에 당신을 마냥 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당신의 대학 생활에서 진정한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확신하기에 감히 '정치적인 대학 생활'을 권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동국대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단독] 학생회실에서 이런 일이?!

모도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라는 뜻의 학생회는 각 소속 단위의 학생들을 대표해 정기적인 회의 체계를 통해 크고 작은 사업들을 기획·실행한다. 오픈너는 학생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고가는지에 대해 학생회 일원으로서 호기심을 갖고 지난 한 해 학생회 회의록을 살펴보았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몇몇 학생회 대표자의 말을 교자에 실어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학생회 대표자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학생회실 안으로 들어가 보자.

1. 대표자 A씨 : 여자는 꼼꼼해야지

- WHEN : 2016년 1월 10일, 00대학 학생회 회의
- WHERE : 알 수 없음(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WHAT SITUATION : 00대학 학생회의 각 국장을 정하는 상황에서.
- 대표자 A SAYS : “사무국은 좀 꼼꼼했으면 좋겠어. 여자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획국장은 개인적으로 남자가 했으면 좋겠고.”

대표자 A씨와 같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래’라는 편협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내뱉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므로 그다지 놀랍지 않다. 그런데 이 ‘고조선스러운 발상’은 실제 사무국장으로 여학생이, 기획국장에는 남학생이 선별되는 ‘현실’로 구현되어 버렸다.

꼼꼼했으면 좋겠으니 여성을 뽑자는 말에는 ‘모든 여성들은 꼼꼼하다(꼼꼼해야 한다)’라는 성차별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를 성별로 나누어 일방적으로 특정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강요한다. 이는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며 폭력적이다. 성별 뿐만 아니라 나이, 학년, 장애여부 등으로 한 사람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 또한 그렇다.

이제껏 학생회는 새터·엠티·농활·축제와 같은 행사를 앞두고 성평등 / 반성폭력 교양을 실시했다. 학내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정작 학생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대표자들의 건강한 학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들이 허울뿐인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2. 대표자 B씨 : 이거 역,차,별 아닌가요?

- WHEN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회의
- WHERE : 총학생회실
- WHAT SITUATION : 여자화장실·샤워실 물레카메라 감시단 활동을 보고하는 안전에서.
- 대표자 B SAYS : “근데 왜 남자화장실은(물레카메라 감시단 활동을) 안 하죠?”

작년 2월, 사회과학관 3층 여자화장실에 물레카메라(이하 ‘물카’)가 설치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오인으로 판명되었지만 가장 일상적인 공간인 학교에까지 물카가 침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학생들 사이로 엄습해왔다. 그러나 증폭된 이 두려움은 오로지 여성만이 감당해야 했다.

남성인 대표자 B씨는 추미진 곳에 위치한 화장실에는 가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을까. 밝고 안전해 보이는 화장실을 어렵사리 골라 들어가서 불일을 보면서도 화장실 내부를 꼼꼼히 둘러본 적이 있을까. 물레카메라가 있는지 둘러보다가 문틈 사이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 손에 휴대폰을 붙들고 있어 본 적이 있을까. 이것은 남성들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지만, 여성들의 불편한 '현실'이다.

대표자 B씨의 발언에서 가장 불편한 지점은 모든 여성들에게 실재하는 고통을 식재하고 오로지 '남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역사별 논리를 펼쳐며 몰카 감시단 활동을 남자 화장실에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화장실 몰카 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이다. 이는 성적대상화되는 여성들의 몸과 그것들이 소비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몰카 감시단 활동을 통해 근절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방' 차원의 몰카 감시단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역사별 주장은 여성들의 고통을 지우고 오히려 여성들을 특혜를 받는 대상으로 위치시킨다.

여성을 위한 정책이 생겨날 때마다 남성들은 "여자가 벼슬이야?"라는 말을 영무새처럼 반복한다. 여성이 살고 있는 불편한 세상에 대해 공감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벼슬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발언을 해도 어떠한 타격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3. 미쌍 : 사라진 안전

- WHO : OO대학 대표자 C씨
- WHEN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총운위 회의')
- WHERE : 총학생회실
- WHAT SITUATION : K교수 성폭력 사건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 대표자 C SAYS : "학교가 징계하겠죠."

! 총운위 회의록에서 언급된 학내 성폭력 관련 안전 !

2016년 10월 3일 32차 총운위 회의, '성추행 교수 사건 대응'이 회의 안건으로 처음 발의됨.

2016년 10월 10일 33차 총운위 회의, 학생회의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됨.

2016년 10월 17일 34차 총운위 회의, 학생회의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되면서, 인권센터 규정 개정 필요성이 화두가 됨.

2016년 10월 24일 35차 총운위 회의, 학내 인권문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음이 보고됨.

2016년 10월 31일 36차 총운위 회의, 인권센터 규정 개정 및 인권센터 체제 보안을 위해 인권센터와 변답 예정이라는 사실이 보고됨.

2016년 11월 7일 37차 총운위 회의, 언급 없음.

2016년 11월 14일 38차 총운위 회의, 언급 없음.

...

2016년 12월 19일 43차 총운위 회의, 언급 없음.

33차 회의에서 대표자 D씨는 K교수의 해당 학과 학생회와 여성주의 교지 '오픈너'에서 입장서를 낸 것으로 K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나 잘못 지적은 무의미할 것 같고, 피해자가 대응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우리(총운위)가 괜히 대책위나 그런 것을 해 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34차 회의에서는 "이미 법정 다툼으로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나 행동이 의미가 있을지"라며 개별 사건에 더 이상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학생회가 해당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때 학생회는 피해 학생이 겪을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사건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보복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피해자분이 원하신다면 트랙을 만들어서(대책위를 세워) 나아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수조사 통해서 큰 문제를 다루는 게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대표자 D씨의 발언은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를 줌고 있는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 대표자 E씨는 32차 회의에서 자신이 K교수와의 친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원래 이런 행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셔서 같이 고발 증언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원래 그런 행동'이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제껏 왜 공론화되지 못했는지 학교사회 전반을 성찰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끊임없이 감시해야 했다. 그러나 10월 3일 이후, 총운위 회의에서 성폭력 안전은 점차 뒷전으로 밀리다가 중박에 버렸다. K교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여러

성폭력 사건은 대체 어떻게 해결되었으며(혹은 해결되긴 한 건지), 36차 회의에서 보고되었던 인권 센터와의 면담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전에 비해 무엇이 개선되었을까. 이렇듯 무책임한 학생회의 단면을 대표자 C씨가 한 마디로 요약해 준다. "학교가 징계하겠죠."

학생회 대표자의 발언 하나 하나는 단순히 회의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어디에서든 의도한 바를 이행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성별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유리천장'을 공고히 할 수도 있고, 여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역차별 주장에 힘을 실기도 한다. 사소해 보이는 대표자들의 언행이 관행을 만들고 성폭력 피해를 해결할 수 없는,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성폭력 피해를 해결할 수 없는 학생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 회의록은 동국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총대의원회실과 학생회 블로그에서 읽을 수 있다. 심심할 때마다 읽어 보면서 비판할 만한 발언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위의 세 발언이 그 발화지만 바뀐 채로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 프로파일러가 되어야 한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넘어갈 때 그 사회는 이미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이다.

학생사회 다시보기

- 대학 내 여성대표자의 위치

계 창

대학 내 여학생의 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 학생회 여성대표자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중앙단위의 대표자는 28명이고 그 중 여성은 단 7명이다. 이 같이 남성대표자의 수와 여성대표자의 수가 현격하게 차이는 것은 단지 여성의 능력 부족인 것일까? 여성대표자의 수는 왜 적은 걸까? 여성이 대표직을 하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남성중심적인 학내문화를 살펴본다. 또한 동국대학교에서 대표자 직을 수행했던 여성들과 2016년도 9월에 진행한 인터뷰를 삽입하여 이를 보충하였다.

학생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대학 내에 여성대표자가 적은 현상은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학생회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학 내 학생사회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뒤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상황으로 통일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엘리트 계층이었던 대학생들은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

화를 싹 틔우는 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노동·인권·환경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은 계속해서 반발하며 한국사회에 여러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정치적 상황의 결합이 계속되었다. 학생회는 '남성성'이 강조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재생산되었다. 급박한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학생사회 내의 여러 소수자의 목소리가 삭제되거나 묵살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성중심적인 문화로 여성 학생의 운동을 남성 학생 운동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여기고 이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남학생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면 선배들이 한 여학생을 지정하여 그 학생이 수감된 남학생의 약혼자 흉내를 내며 수발을 드는 '옥바라지'를 하게 한다든가, 남학생은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내고 여학생은 그 구호를 받아 선전물을 작성하여 자신의 구호는 만들 수 없었던 과거가 있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부수적인 대상으로 보며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학생사회의 악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회의 문화는 여전히 반복되며 계승되고 있다. 차기 학생회장에 대한 권유가 아무런 고민 없이 제대 후 복학한 남성에게 이루어진다면, 학생대표자 선거공고 대자보에 학생대표자의 능력검증과는 전혀 관계없는 군 경력을 올린다면, 학생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에게는 돌봄 노동이 주 업무인 복지부와 같은 위치만이 주어지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남성 둘이서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여성 둘이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적고, 여성과 남성이 파트너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남성이 정후보자로 여성이 부후보자로 추천된다. 이런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사회 내의 반여성주의적 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학생대표자에 도전할 수 없게 하는 하나의 기제이다.

다음 인터뷰 내용은 동국대학교에서 대표자를 했던 여성A의 경험이다.

■ 어떤 이유로 대표자가 되었나?

A - n년도 학생회장을 결심하기 전까지 과학생회에서 열심히 일했었다. 모든 학과 행사에 참여했고 학과 구조조정 부경도 열심히 참여했다. 또 기획부장, 과대의원을 맡아 학생회를 꾸려나갔다.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선배들과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좋았었다. n년 10월, 다음 학생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과는 고학년 선배들이 다음

학생회장을 내정하는 악습이 있었다. 그 해에도 그들만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내정자는 다음 달 전역하는 남자 선배였다. 그런데 그 선배는 우리과 공동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구성원 대부분이 악아해 했었다. 더욱이 그 사람이 군대에 있었던 n년 동안 우리는 학과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어냈었다. 이런 이유들로 그 선배가 전역 후 바로 학과를 아꼈어나가기엔 그의 공백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누구보다 과 활동을 열심히 했던 n학년 여성 학우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후보자에서 '당연하게도' 제외되었다. 그에 반해 내정자가 된 그 선배는 남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후보자가 되었다. 이에 대해 반대하여 학생회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공동체에 대한 고민 없이 제대 후 복학한 남학생이 대표자에 추천된 이유는 뭘까?

A -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회장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1과대부터 과내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1과대를 장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남자학생들이 더 추천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 '여자는 조직체계를 잘 모를 것이다'하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역한 남자를 학생회장으로 세우는 것도 군대에서 조직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단위내의 '기강'을 잘 잡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전역한 남학생이 학생회장으로 추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는 제대 후 복학한 남성선배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학생 대표자 권유에 반발하여 보다 학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이 주로 대표자 직에 출마하는 이유를 사회전반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단위 내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단위 내의 '기강'을 잘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학내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의 각 학과, 학부, 반, 학생회 집행부, 소모임, 동아리 등은 학내 구성원들의 사회문제 의식고양과 연대, 유대감, 자치활동 증진 등을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학내 공동체는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각 공동체의 학생 대표자는 학생회 구성원을 훈육하는 교관이 아니라 학생회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 이를 분명히 하고 학내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기부장제를 답습하는 학내문화 속에서 학생대표자로 활동하는 여성은 남성대표자라면 겪지 않을 다른 맥락의 경험을 하게 된다. 대표직은 많은 경우 이미 '남성 동성 사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인 대표자들은 이전에 대표자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또한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남성대표자들보다 나이가 적다. 나이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적음으로 인하여 남성대표자들과는 다른 맥락으로 학우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동료 대표자들 사이에서도 나이주의적 분위기와 성별로 인한 차별 때문에 여성대표자들이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대표자는 스스로 모순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때까지 단위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남성성'이 강조된 리더십이었고 여성 대표자 스스로도 그러한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과장된 '남성성'을 수행한다 한들 '그들'에게서 '완전한 남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다른 방식으로 단위를 이끌어가고 고민을 해보아도 이전에 없던 방식이라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도 기존의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이 이를 긍정하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방식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대표자로서의 갈등은 기존의 학생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고민과는 다른 양상이다. 따라서 더욱 구체화시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다.

■ 대표자를 하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

A - '제가 과의 기강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선배들의 걱정이 많았다.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어린 여자로서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의문이 있었다. 그런 의심을 받는 상태로 1년을 시작하는 것이 불쾌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남성성'을 드러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예를 들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술을 잘 먹는 등의 행동들이 있었다. 그런데 대표자직을 수행하다보니 그것이 잘 먹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내 개성대로 했다. 다사다난했지만 학과 내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한해를 보냈다. 한편으로 단과대운영위원회의(이하 단운위) 때 모든 학생회장들이 이제 막 재대한 n학년 남자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단운위는 마치 내부만 같은 분위기였다. 더 나이 많은 학생회장이 말하면 평소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치기도 했고 치열한 논의로 회의가 길어지면 남성 학생회장들끼리 담배를 피우면서 말을 맞추고 들어와

이전에 논의된 안전을 얹어버리는 상황도 있었다. 그 분위기가 참 불편했었다.

■ 여성대표자에게만 요구되는 역할이 있다고 느끼나?

B -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여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화장이나 복장에 더 신경을 쓰는 등, 더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었다. 이전의 남성 학생회장에게는 모자를 쓰고 행사에 참여해도 아무런 제지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외모에 대한 비판이 들어왔다. 이런 비판들이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느껴졌다. 또 이런 부분이 단위 행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시험 기간에까지 화장을 안 하고 편하게 학교에 오면 외모지적이 들어왔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용모단장을 요구당하는 것은 '여성성'을 강요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 - B의 말에 동의한다. 앞서 말했던 목소리가 크고, 술을 잘 마시고, 지시를 잘하는 등의 '남성성'을 요구하면서도 여성 학생회장으로서 다독이는 것을 할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는 강력하게 지시하면서도 뒤에서는 돌봐줘야 하고.

A와 B는 서로 다른 시기에 대표자 직을 수행했다. 그래서 시기에 따른 차이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여성대표자에게는 남성대표자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말해지는 '여성성'을 강요받는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A는 강요받는 '여성성'과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학생회장의 '남성적인' 언행에서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표자 스스로조차 대표자라는 직책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특정한 성별에게는 다른 잣대가 존재함을 알려준다. 하지만 A의 경험처럼 타인이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 이를 답습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의 방식을 찾고 추구할 수 있다면 일 년 동안 대표자직을 수행하며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여성'대표자가 더 필요한지, 또 학생사회에 바라는 것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A와 B가 답변한 인터뷰 내용이다.

■ 여성대표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학생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B - 여성대표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단원위만 보더라도 남녀 성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학생회장)의 자리에 있음과 동시에 나이가 적은 여성대표자는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이다. 대부분은 부(부학생회장)의 자리에 있거나, 정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이가 많은 여성이 대부분이다. 여성 대표자가 더 많이 있어야만, 기존의 남성 대표자에게 동한시되는 편이었던 주제가 한번이라도 더 끌어올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고, 여자라도 남성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강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들 피부로 통해 느껴야만 한다. '이번 학생회장은 군대를 갔다 온 n학년 남자가 할 차례'라는 소리는 그만 듣고 싶다. 자격이 되고 자신이 하고 싶다면 누구나 대표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생사회에 바라는 점은 여성이 대표자로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 혹은 강경하게 의견을 어필할 때, "기 생 여자, 극성맞은 여자"라고 표현되지 않는, 남성과 같이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A - 물론 더 필요하다. 요새 학생사회에 대표자들이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대표자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표자의 후보에서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우수한 여성인재들이 많이 대표자가 되어서 학내에 아직도 무수한 차별문제, 성폭력 문제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많이 밖으로 꺼내주길 바란다.

위의 인터뷰는 단순히 '여성'인 대표자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차별해왔던 여성들이 스스로의 위치와 소수자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나갈 수 있는 한 갈음으로서의 여성대표자가 더 많이 나타날 바라고 있다.

제3막을 기대하며

필자도 학생대표자 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 큰 고민 없이 1년을 시작하게 되어서 내가 왜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지, 이 공동체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생각이 적었다. 이 때문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공동체에 쏟아내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1년 간의 대표자 직을 마칠 때쯤 또 대표자 직에 대한 제안이 왔다. 그 상황에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대표자 직을 이어가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판단하여 거절한 후 고민을 이어가게 되었다.

출로 고민하고, 그 고민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궁금증이 나타났다. 그래서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친구들과 모여 여성주의 모임을 만들고 책모임을 하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오프너 활동을 시작했다.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왜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고민들도 풀여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인 남성중심적인 학내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결론은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학생들의 증언과도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또 소수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바꾸어나가는 동국대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민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학생사회로 나와 차별의 경험을 증언하고, 고발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소수자가 학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고하게 쌓아올려진 학생사회의 가부장적, 나이주의, 군사주의 문화에 균열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존 문화의 균열과 변화를 위한 노력은 어쩌면 A가 말한 것처럼 매년 학생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표자를 할) 사람이 없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들 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 학생회를 기대해야 하는가

까 또

“재학생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2016년 3월 '야채칸' 논란이 일어난 해당 학과 학생회장의 대사이다.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를 다녀오자마자 페이스북 페이지 '동국대학교 대나무숲(이하 '동대숲')'에서는 야채칸 사건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산하 여성주의 네트워크 '움직임'은 야채칸 사건이 발생한 해당 단과대 학생회장, 학과 학생회장들과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A는 사발식을 했던 신입생들은 모두 즐거웠다고 말하며 이렇게 논의 테이블을 만든 총학생회의 의도가 신입생들을 과하게 피해자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A는 "재학생의 인권은 어디에 있냐"고 반문했다.

1) '야채칸'이란 냉장고 야채칸에 술을 참전가량 담아 신입생들이 술을 전부 마셔야 하는 해당 학과의 사발식 전통이다. 한 신입생이 야채칸 사발식 때문에 술을 먹지도 마지 귀찮음을 느꼈다고 쓴 게시글이 동대숲에 올라왔고 해당 게시글은 논란이 되자마자 삭제되었다. 그러나 사건 해결 과정에서 동대숲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건의 진정성이 의심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사건 발생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대표자 A의 발언에 주목한다.

대표자의 인권 감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A가 말한 '재학생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 얼핏 보면 A의 문제제기는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자 공동체 문화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에 따르면 사발식을 했던 모든 신입생들이 즐거웠다고 한다. 하지만 사발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줄 세워서 술을 먹게 한다'라는 그 자체에 있다. 신입생들을 배려해서 못 먹는 사람을 이해해준다고 하더라도, 사발식은 술을 누군가의 강요 아래 마시게 하는 자리이다.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학과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잘 마시는 사람이 되거나 문화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을 선택할 뿐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란 없다(석순, 2015, 50p). 이러한 사발식 문화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술을 강요하는 위치의 재학생이 '재학생의 인권'이 어디에 있다고 묻는 것은 신입생과 재학생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식재하고 사발식이라는 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오히려 사발식 논란을 예민한 누군가의 문제로 전락시켜 '인권'을 이용해 강제사발식을 계속하길 바라는 재학생의 이해(利害)를 실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와 지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학내 인권 감수성 지수는?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지닌다"라는 인권 개념이 학내에서 실현되기 위해 학생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오프너는 학생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앙단위와 단과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아래는 설문조사 답변에 대해 상반기 감사 자료(총대의원회 제공)를 참고해 도출된 표이다.

각 단위에 보면 설문조사 문항은 총 다섯 개로 모두 인권/젠더/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0을 가장 많이 가져간 단위는 총학생회와 사회과학대학이었다. 총학생회는 인권지킴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결원 중인 총여학생회를 대신하기 위해 네트워크 산하 여성주의 네트워크 '움직임'을 설립했다. 사회과학대는 유학생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공약을 내세웠고 이를 이행했다. 또한 농활에서 성평등 교양을 진행, 단일수 새터 축제농활에 두리버너를 세웠다. 약학대는 여학생휴게실 사업을 공약으로 세웠으며 학생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공약을 이행

했다. 예술대와 문과대는 각각 새터, 주점, 농활에서 성평등 교양을 진행하고 두리버너를 세웠다. 사범대 또한 농활과 새터에서 두리버너 사업을 진행했다.

학생 자치단위	설문조사 질문	인권 / 反성폭력 관련 선거공약 유무	인권/성평등 관련 부서 유무	학생회 사업에 두리버너 / 인권 지킴이 유무	학생회 사업 전 인권 캠페인 / 성평등 교양 진행 유무	언급된 것 외의 인권 / 성평등 관련 사업 유무
총학생회*		○	○	○	×	○
총여학생회				공식		
총대의원회		×	×	○	○	×
동아리연합회*		×	×	×	×	×
예술대		×	×	○	○	×
문과대		×	×	○	○	×
이과대*		×	×	×	×	×
사회과학대		○	×	○	○	○
공과대*		×	×	×	×	×
경영대		×	×	×	×	×
불교대		×	×	×	×	×
사범대*		×	×	○	×	×
법대*		×	×	×	×	×
약학대*		○	×	×	×	○
바이오시스템대		×	×	○	○	×

*화선여 오지 않아 총대의원회 일반기 감사자료를 참고한 단위

〈표 1〉 2016년 상반기 학생회 성폭력 / 인권 관련 정책 현황

학내 전반이 인권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학생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기조를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학생회 대표자의 역할이다. 학생회 대표자는 모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이기에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인 학우들이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후보자가 제시하는 방향과 학우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가 어떠한 지점에서 맞닿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매해, 학생회의 위기

유드림스에 로그인하지마자 보이는 페이지에 대표권한이 '학생(학부)'이라고 보이는 모든 학생은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다. 즉 동국대를 다니는 모든 학생은 학생회 구성원인 것이다. 그러나 학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학생회 사람들'이란 사실 학생회 운영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학생회 운영체계 중 운영위원회의 대표자들은 흔히 '학생회 대표자들'로 불리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러나 매년 학생회 선거 시즌마다 나오는 '학생회 할 사람이 없어'라는 말처럼 차기 학생회장에 출마하겠다는 후보자가 없어 학생회가 세워지기 어렵거나 학생회장 후보자가 나와도 부후보자를 찾기 어려워 실무를 진행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년도에 학생회가 없다는 것은 꽤나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를 세우는 것은 누군가만의 고인격리로 여겨진다. 학생회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의 위기임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 학생회의 위기인가

가장 큰 문제는 학생회와 학생 간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학생사회와 개인의 일상이 분리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납부내역에서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고, 취업경쟁으로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치열해짐과 동시에 학생회/학과 활동을 기준으로 '인싸(인사이드)'와 '아싸(아웃사이드)'가 구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생회의 위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위기'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다가오기 어렵다. 학생회가 무너지는 것이 위기라기보다 지금 당장 돈이, 취업이, 학점이, 사람이, 혹은 일상이 더 큰 위기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학생회와, 학생사회와 직결된 것으로 상상하기가 더 어려운 현실에서 학생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2 학생회 운영체계란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의미한다. 학생회 운영은 학우들이 직접 학생회 운영에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과총회-단과대 총회-전체 학생회 총회'로 이어지는 <총회>가 있고, 이러한 총회를 자주 할 수 없으니 일상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각 학년의 대표, 부대표 등 학우들의 손으로 뽑힌 대표자로 구성되며, 학생회 사업과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동국대의 경우 대학원체계가 있으므로 과학생회에 서는 운영위원회가 없다. <집행부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온 학우들의 의견을 자신의 부서에 맞게 실행해나가며 실제 학생회 사업과 활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이다.

학생사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 중 하나는 학생회가 곧 공동체라는 것이다.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조직이 바로 학생회이다. 따라서 동국대학교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묶여 학생 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가는 동등한 주체이다. 하지만 대학문화의 많은 부분은 성별, 학년, 나이, 군필 여부, 출신지역,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에 따라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소외시킨다.

우리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20대라는 특정한 나이에, 이성애자에, 유성애자에, 비장애인, 잡식주의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쉽게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우리의 공동체가 나이주의적이고 이성애·유성애 중심주의적이며 비장애인, 잡식주의, 한국 국적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경계선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소수자'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에 포함되기 어렵다. 특히나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남학생들이 학생회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인식하에서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로 학생회가 운영된다면 배제된 이들은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학생사회에서의 정치적 참여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소외된 학우들의 의견을 개진할 만한 창구가 마련되지 않고 소수자들이 학생회 구성원으로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학생회는 위기라는 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학생 공동체가 과연 모두를 배제하지 않고 평등한 문화를 갖고 있는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생사회의 의제를 설정하고 있는가이다.

우리는 어떠한 학생회를 기대해야 하는가

당신에게 학생회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공동체란 어떤 의미인가? 학생회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학생 공동체는 필요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익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해봐야 한다. 새터라는 낯선 공간에서 학생회 대표자가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주도자라면,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서 '재학생의 인권'을 운운하며 책임 회피하는 대표자라면, 그리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신입생이 익명의 힘을 빌려 대나무숲에 사연을 제보해야 한다면, 학생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

학생회의 존재 가치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학교라는 거대한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정의(justice)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즐겁기 위해 등등 매우 다양하지만 오히려 학생회가 소외된 개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지점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혹은 인권침해가 일상적인 학내 소수자들의 삶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오지 못한다면 학생회의 위기는 매 순간이다 찾아올 것이다. 이들을 학생사회로 이끌어 들이는 작업은 학내 인권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매년 제기되는 학생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학생사회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과제는 단결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생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제를 풀어내는 첫 출발은 여성주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참고 문헌

논문

- 진희경, 2012,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단행본

- 석순편집위원회, 2015,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2

기획 1 패밀리즘 Familism

들어가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족은 꽤나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두가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향을 좇으며 살아가죠. 흔히들 자상한 아빠와 상냥한 엄마, 자녀들의 모습을 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말에서 권력과 권위로 찍어 내리는 사람과 굴복하는 사람, 폭력, 불평등,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를 떠올리는 일은 매우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가족 안에서의 갈등, 권력관계, 차별과 불평등, 폭력은 너무나도 쉽게 감추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가족이니까 괜찮은' 갈등과 차별, 폭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족'으로 포장된 사선이 아닌,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요즘 저런 일이 어디 있냐.', '우리 집은 아닌데?' '예민한'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벌어지는 일이자, 누군가는 평생을 겪고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아직도 니 엄마로만 보이니?

엘사

'강인한 모성애...암 진단에도 10명 중 8명이 출산(연합뉴스, 20160307)'

올해 3월 개강 첫 주에 강한 인상을 남겼던 기사였다. 말 그대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임산부를 분석한 결과, 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치료 대신 아이를 선택한 사람이 79.8%였다는 통계였다. 기사는 이러한 암 환자들의 선택의 밑바탕에는 강력한 모성애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니 '정말 엄마라는 존재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역시 여자는 아이를 가지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럼 애를 낳아가지, 암 걸렸다고 유산이라도 시켜야 정상이나?' 따위의 댓글들이 이미 많이 달려 있었다. 환승을 위해 기다리던 4호선 서울역 플랫폼에서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라는 임산부 배려석에 관련한 문구를 연이어 발견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흡연을 비롯한 옷차림, 몸가짐 등 여러 생활양식을 단지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될 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원경기 이전까지 제재 받으며 살아간다. 요즘 초등학교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90년대 생

이라면 성교육 시간에 낙태비디오는 봤어도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겪을 때 어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지는 배우지 않는다.

여성이라는 성별을 갖고 태어난 개인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에 걸렸든,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엄마로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위해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강력한 모성애'로 무장해야만 한다.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임신 계획이 없는 여성도 모성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여성은 결국 어머니가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자리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임신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겪어 힘든 '여성을 위해' 양보해 달라고, 건강을 위해 아이 대신 항암치료를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여성 억압의 기제로 쓰이는 모성을 부정했을 때 돌아올 대답과 눈빛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 아기는?"

여성은 왜,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걸까.

'만들어지는' 母性

가족주의¹⁾ 안에서 가족은 여성이 남성에게 예측되고,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시되며, 개인보다 집안을 우선하는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형태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 안에서 자궁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개인 그 자체의 주체적 삶이 아닌, 예측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곧 여성은 미래에 어머니가 될 존재, 그 이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여성의 종착적인 정체성인 '모성애'로 충만한, 신성한 어머니가 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면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에 관계없이 본능을 거스르는, 어딘가 결여된 존재로 치부된다. 이러한 기제는 제3자에 의한 여성억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여성 스스로도 이 기제에 맞춰 순간순간 자신을 평가하거나 억압하여 자책하게 만든다.

1) 가족주의(Familism)란 좁게는 가족 구성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으로서의 가족 그 자체를 어떻게 공동체로 삼는 가족 중 심적 삶의 원리를 뜻하며, 넓게는 이 원리를 가족 이외의 사회관계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하지만 母性은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서 여성이 임신, 출산과 수유를 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특징을 포함한, 그래서 만들어지는 사회·문화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성은 항상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해 왔다. 한국사회에서 모성 실천의 모습은 근대화 과정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의 시작과 IMF 상황의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시대 등과 같은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그 맥락 속에서 변화했고 만들어졌다(황경아·홍지아, 2011). 이 흐름과 맥락 속에서 모성담론은 더욱 장형화되고 더더욱 신화적인 모습으로 공고화되고 재생산되었다.

모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거듭되는 변화, 고착화되는 신성한 모성담론이 여성 억압 기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오로지 남성적 언어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생물학적이든, 사회문화적이든 어머니가 되는 주체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성을 발화할 때 그 주체는 여성이 될 수 없었다. 여성의 정관의 일부가 발달하여 골반 안쪽에 위치하는 장기는 흔히들 '자궁(子宮)'이라 칭해진다. 여성의 몸에 존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에게 생리를 하게 하며, 수정란을 착상시키고 태아로 키워내는 기관이지만 이를 칭하는 이름은 '궁'이다. 여성의 몸에 존재하는 장기의 이름이 자궁인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여성의 몸이 남성들만의 '어머니'로 소비되어 왔던 긴 역사를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자궁을 대신할 이름인 포궁(胞宮)이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은 자궁을 가진 몸으로



2016년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각종 주류용기에 임신부의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가임 여성이 매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 중 열에 한 명꼴로 '고위험음주군'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문구를 추가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임신이 음주에 안 좋습니다."

설명되며, 또한 자궁 그 자체로 취급된다. 여성의 몸과 일상,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 남성적 언어와 시각은 어떻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결국 남성의 언어로만 설명되는 여성의 삶과 모성담론은 여성을 희생하게 만들고 고통 받게 만든다.

근대 산업화 시대 이전 여성의 공간은 지극히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일이 곧 어머니 여성의 일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가 일어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장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경계는 가정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 그런 변화에 맞춰 모성담론은 여성에게 가정도 챙기면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주문한다.³⁾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이 주문은 '위대한 모성', '어머니는 강하다', '슈퍼우먼' 등으로 신화화되면서 마치 그것이 이상향인 듯, 이를 좇게 만든다.

모성담론에 끼워 맞춰 살려는 여성, 그 잣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여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각종 미디어의 끊임없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성 연예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거의 다시 태어나다시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들의 방송 노출은 누군가에게는 워너비, 누군가에게는 열등감 혹은 죄책감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그런 여자 연예인들도 모성담론에 구속되어 있는 여성이기에 '어머니'라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 상 모두가 바라는 모습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머니' 여성을 표방하는 모습은 참 단순하다. 눈물을 쏙 빼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이거나 자식을 내버린 비정한 엄마, 헌신적인 어머니는 후줄근하고 푸근한 인상이지만 이기적이고 비정한 엄마는 세련된 모습의 커리어우먼이다. '본능적'이라는 모성을 받아들이고 사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쩌야만 하는지 어지럽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능에서도 모성 찬양하기는 계속된다. 냉장고를 들여다보는 모 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출연자가 나오면 당사자의 살림 평가를, 남성 출연자가 나오면 그의 어머니나 배우자의 살림 평가를 내린다. 지난 7월 4일에 출연한 B1A4 비로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요리하고 냉장고 정리하는 일을 행복해 하신다."며 자부했다. 인기리에 시리트로 이어지고 있는 심시세끼에서도 없는 살림에 아들들(손호준, 남주혁 분)이 먹고 싶다는 걸 먼저 챙기는 어머니(차승원 분)의 모습은 '이것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자막과 함께 한다.

3) 실제로 통계청의 '맞벌이·1인 가구 고용현황'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1천165만8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2만여명 늘어난 532만9천 가구(45.7%)로 조사됐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 남성은 40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까이 긴 것으로 조사, OECD 회원국 중 골짜기를 기록했다.

신성함과 천함, 그 이중성

이렇게 따지면 '어머니'라는 고귀한 희생적 이미지, 신성한 이미지는 조선시대에 아내가 죽은 남편을 따라 죽거나, 수절하여 시부모를 정성껏 모신 과부를 기려 열녀바를 세워주는 것과 비슷하다. 돈을 아껴가며 자신의 것을 챙기기보다는 남편 것, 자식들 것을 챙기는 것, 아무도 하기 싫어 하지만 누군가 해야만 하는 가사노동을 하는 것, 아이를 위해 일을 포함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 가족구성원들의 감정받이가 되는 것, 어머니 여성에게 기대하는 일이지 요구되는 일이다. 희생하는 어머니, 위대한 모성이 신성시되고 고귀해지는 이유는 남들이 꺼려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머니가 견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천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귀해진 것이다.

하지만 남들이 다 꺼리는 일을 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선언하면 끝도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여성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당사자 여성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만큼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한다. 특히 '어머니'라는 경계가 가정을 넘어 사회로 확장되어 직장과 가정을 오가는 슈퍼우먼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부담은 더욱더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 워킹맘, 임신중절에 대한 시선은 비난에 더하여 조롱, 열사를 받는다. 천해지기 싫어 스스로를 위한 삶을 선택한 여성은 결국 비정하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이토록 신성시되는 모성담론만큼 이중적인 것은 없다. 임신부 배려석에서조차 태아 때문에 몸이 불편한 신모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지 않고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라 하니 거의 임신한 여성을 인큐베이터쯤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문구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모성을 떠받들고 박수치면서 어머니인, 혹은 어머니가 될 여성을 매순간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서 소비하여 그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엄마'

돌아보니 여성인 우리네 인생은 이미 '엄마'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나중에 아이가 건강하려면~'이라 시작되는 억압의 굴레를 살아간다. 하얀색 타이즈를 신고 뽕뽕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어저는 천 데 앉으면 안 돼'라는 말로 행동거지를 제한 받으며, 이 억압의 굴레는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여성의 발목을 잡는다. 한낱 기호식품이라는

담배도 가임기 여성에겐 들고 있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다 여성의 인생에서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 여성은 그 아이의 건강, 성장, 학업, 성공, 미래까지 책임지는 형국이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딸로서 애인으로서, 혹은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여성이라면 엄마 역할을 대신할 존재로 기대되며 모성애적 덕목을 요구한다. 학교나 학내 동아리 안에서 '~오이는 엄마역할 같아~' 따위의 말을 쉽게 말하고, 쉽게 듣는다.

아이를 적게 낳는 사회적 추세 상 하나뿐인 아이를 위해 워든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유대관계에서 오는 이점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없이 오로지 아이에게만 초점 맞춰져 여성을 '사용'하려 하는 사회적인 태도는 엄마 노릇 하려는 여성을 더 옥죄이게 한다. 아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어머니 여성에게 '당연한 행복'만은 아니라는 걸 몰라주는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선택을 하든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자궁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모성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으며, 그것을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사회에 행배해 있는 '이상적인 어머니 덕목'에서 비롯된 억압과 검열의 장치들은 여성을 죄의식에 가두어 좀 더 강한 희생을 쥐어짜낸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성과 신화적인 어머니 덕목을 강요하는 속박은 엄연한 차별이자 폭력이다. 어머니가 되는 것, 즉 아이를 가져 낳아 기른다는 것은 더 이상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해방이 필요하다. 여성을 포위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모성 이데올로기, 신화와 같은 어머니 규범으로부터 어머니 여성은 해방되어야 한다. 누구든 '누군가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여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 이유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아이를 낳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며, 아이를 낳기 위해 태어난 여성은 없다. 또한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이미 개인의 모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사회적 사안이다. 그렇기에 어머니 여성에게 사적인 문제로 떠안겼던 것을 찾아와 공적인 해결방안을 도모하며, 여성이 전통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어머니' 정체성을 찾고 구축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남편을 위한, 아들을 위한 '모성'이 아니라 여성 자신을 위한 '어머니' 정체성 구축은 여성이 '어머니' 외에 다른 정체성을 갖는 일 역시 용이하게 할 것이다.

B와 D사이의 섭섭함

섭섭이

섭섭이의 탄생

나는 90년대 페미니즘이 한국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을 무렵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었다. 그랬기에 뱃속에서 성별을 감별당한 후부터 꼭 '섭섭이'라는 태명을 갖게 되었다. '섭섭이'로 불렸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여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본명을 얻고 나서는 '섭섭이'라 불리지 않았을 뿐 그 이름 안에 담긴 원망과 같은 투정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에게 던져졌다. "네가 아들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거야." 이 말은 거듭되다 결국 운명을 거스르고 태어난 계집아이를 만들어냈다. "너는 원래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딸로 태어나버렸어. 그러니 네가 집안의 아들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여자아이라는 걸 알고 낙태를 하려 했는데 네 할머니가 말려서 널 낳았어."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는 아주 당연하게 '계집애' 같은 꿈을 '똥' 싸주는 전형적인 여자 마초로 자라나게 된다.

참고 문헌

논문

- 강혜경, 2008, 「여성주의 율리 시간에서 본 여성의 모성」
- 황경아·홍지아, 2011, 「TV매체에 재현된 한국사회의 모성실천」

단행본

- 정희진, 2013, 『페미니즘의 도전』

신문기사

- 뉴시스, 20160721, 소주·맥주병에 '기형아 출산' 등 임신부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동아일보, 20151207, 韓 맞벌이 부부 남성 가사노동 시간 OECD '꼴페'... 중국·일본·인도보다 낮아
- 연합뉴스, 20160307, 강인한 모성애...암 진단에도 10명중 8명이 출산
- 연합뉴스, 20160629, 1인가구 500만 시대...맞벌이 '기러기 부부' 증가세(종합)

그러나 집 안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언니도 있었기에 동시에 나는 '여자아이' 다울 것을 요구받았다. '애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월가닥으로 컸는지 몰라', 그리고 '네가 아들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들리는 두 가지 말은 어린아이에게 존재에 대한 혼란을 주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렸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경험했던 가정폭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딸이니까 봐주는 거야

정차 나는 내가 '남자아이'가 될 수도, '남자아이'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모부님은 자주 다투셨다. 물론 이 다툼은 일방적인 아버지의 폭력으로 결론이 났다.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의 여성 구성원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훈육' 혹은 '부부싸움'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당했다. 그렇기에 깨달았다.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딸이니까 실실 때려준다'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크면서 아버지의 폭력은 점차 줄어들었고 잠시나마 물리적 폭력에서 벗어난,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 언어적 폭력은 계속됐다. 이미 여러 차례 터졌던,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과 같이 살면 느는 것은 눈치뿐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맞기 싫었기 때문에 항상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집 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소리는 내 귀에 수시로 들려왔다. 그 무렵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었다. 상담선생님은 우울증의 원인이 가정 안에 있다는 말을 했다.

Let's sue the bastards!

약도 먹고 상담도 다녔지만 나에게 평정심을 찾아 준 것은 포기와 무력감이었다. 나는 내 일상에 '적응'이 되었다. 아버지에게 언제 혼날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아버지에게 당하는 폭력도, 집 안 물건이 부서져 하나씩 없어지는 것도,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맞고 있으면 방문을 조용히

닫고 이어폰을 끼는 것도, 아빠의 폭력이 심할 때 엄마가 잠시 나를 데리고 나가 모텔에서 학교로 등교하는 것도 모두 '적응'이 됐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알아서 조심하면, 가끔 운이 나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을 터득하니 일상은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잘 굴러갔다. 나는 요령을 터득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다. 가정 내 폭력의 대상은 이제 어머니만 해당되었고 나는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전했기에 일상을 내 방 안에서만 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수능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생전 일해 본 적 없는 나에게서는 몹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에너지를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다 써버려서 집에서는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것은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고소했다. 일을 마치고 들어온 나는 아버지의 시비를 줄게 넘길 기력이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나를 뒤따라 와서 싸가지가 없는 '넌'은 '내 집에서 머물 가치가 없다는 말을 했고 나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오랜만에 나를 때렸다.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주먹과 발로하는 구타는 아니었다. 그것들에 비하면 숨털같이 가벼운 손짓이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맞는 와중에 경찰에 전화했고 결국 우리는 동네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나는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내가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맞았는지,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의 고통을 주었는지를 호소하여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찰아저씨는 나에게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나는 고소를 취하기 위해 앞서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끝끝내 아버지는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라) 짐사람, 내 아이를 때렸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라며 당당하게 앉아있던 아버지는 지역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떠났다. 나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 당연히 조사가 끝난 아버지도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다. 내 방에 들어오려는 아버지를 엄마는 밤새워 막았고 나는 방문 밖으로 들려오는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으며 잠을 청해야만 했다. '내일도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 '그 돈은 이 집 밖을 나오게끔 하여 나를 구원할 것이다.' ऐसे 이런 생각들을 하며 잠에 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모은 돈으로 학교 근처에서 살게 됐고 재편까지 가게 된 아버지와 나는 그 때마다 만났다. 우리는 의미 없는 대화 몇 마디만 나눴다. 집안에서 '아빠를 고소한 독하고 나쁜 년'이 된 나는

결국 합의를 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처분으로 몇 시간의 상담과 교육을 받으러 가며 끝이 났다. 다행히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빠른 시일 내에 별거에 들어가셨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맞은 상처를 숨기는데 급급했고 밖에서는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란 딸인 척하는데 일평생을 보내왔다. 그러나 내가 딸로 태어나서 내가 밤늦게 짙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폭력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Silver linings playbook¹⁾

가족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가부장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누군가에게 있어 그것은 존재 방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억압이고 폭력이다. 아버지가 가장으로 군림할 때, 나와 어머니는 숨죽여 엎드리고만 있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인 나에게 '페미니즘'은 무엇인가. 우연히 한 페미니스트가 쓴 성폭력에 관한 글을 읽게 됐다. 그 글에는 '피해자'라는 말 대신에 '생존자'라는 표현이 쓰였고 이는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젠더 권력 아래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은 단순히 '피해'가 아니라 여성에게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의 존재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어떻게 피해자가 피해를 당당하게 드러내도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지금껏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생각해왔고, 그렇게 살아왔다. 누군가는 촌스럽다 말하겠지만,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CM송처럼 나는 페미니즘을 알고 나서 내 삶이 달라졌다. 나는 내가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억압받는다는 것을 가정폭력을 경험하여 느꼈다. 단지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당당한지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다. 페미니즘은 그런 나에게 언어를 만들어주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나와 같이 '섭섭이'로서의 경험을 겪었다면, 이는 가족주의 아래에서의 성별 차별 및 가정폭력이 2016년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섭섭이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당신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동시대에 섭섭이들도 존재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 옆에 섭섭이들은 남아있다. 표현을 해보자면, 그들은 Birth 와 Death 사이에서 섭섭이로 살아가며

1) 2012년 개봉한 영화 제목. 'Silver lining'은 '구름의 흰 가장자리.' '불행 속의 한 줄기 희망'이라는 뜻으로 어두운 구름을 넘어 한 줄기의 빛을 찾아주는 두 남매의 이야기이다.

선택한다. 섭섭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섭섭이의 가정을 부수고 나올 것인지.

그리고 섭섭이들에게 여성주의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섭섭이인 나는 젠더 권력에 기반한 가부장제의 억구름 속에서 페미니즘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이 글이 가족주의, 가부장제 이 모든 것에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용기나 위안을 줄 수 있는 Silver lining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3

기획 2 2016 여성혐오

들어가며

2015년에 발간된 오픈너 창간호에서는 <극혐주의>라는 주제로 미디어 속 여성혐오, 메갈리아의 탄생, 그리고 메갈리아와의 인터뷰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여성 혐오 담론은 확산되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5월 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살해(Femicide)'는 여성의 삶 속에 실재하는 여성혐오의 순간들을 포착해 이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거리 밖으로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여성혐오는 실재하고 있나요? 지금 당신의 삶은 변화했나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마련된 '2016 여성혐오'입니다. 이번 기획에 실린 <분노한남자들>, <조심하고 지켜야 할 여성은 없다>, <시스터후드 라이딩> 이 세 글은 각기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모두 '여성혐오'라는 거꾸집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의 여성혐오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여성혐오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기획은 시작되었습니다.

분노한남자들

맺임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2015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메갈리아는 2016년에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한 이슈였다. 혹자는 메갈리아인들의 페미니즘은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말을, 미러링과 과격한 그들의 언행은 또 다른 혐오¹⁾를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메갈리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페미니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메갈리아는 일베가 짓밟은 사회 집단 중 조직적으로 대항한 유일한 '당사자 집단'이다(정희진, 한겨레, 20160730). 또한 메갈리아는 남성중심사회에서 2000년대 들어 가장 크게 가시화 된 당사자, 피해자 집단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전부터 바뀌지 않는 젠더계급문화를 버티며 사회를 설득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은 단번에 가시화되지 못했다. 수많은 여성연대, 단체가 있었지만 2016년의 메갈리아는 티셔츠 한 장만으로도 수많은 '남성'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할 만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논의의 장에 페미니즘과 여성혐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메갈리아의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스탠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반메갈리아 남성 진영에서 주장하는 '진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메갈리아 이전의 페미니즘? 그러나 "한국의 페미니즘은 진짜 페미니즘이 아니다."라는 모두가 다

1) 시스템(인)생물학적 성과 본인의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경우: 남성혐오, 메갈리아에서는 제대로 남성 혐오 여성혐오뿐만 아니라 게이 남성들의 여성혐오에도 주목했다.

아는 문장이 있듯이 그들은 메갈리아 이전의 페미니즘에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득권에 대한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계급운동을 본 적이 있는가? 기득권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에 과연 어떤 힘이 있을 수 있는가? 오빠(젠더 기득권인 시스템 남성)가 허락한 페미니즘이 과연 여성인권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은 정해져 있으나 그들이 허락한 '진짜' 페미니즘, '진정성'은 여전히 페미니스트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상대방이 들을 수도, 상대방의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말은 독백이다. 그러나 남성중심사회는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대화가 아닌 독백과 같은 투쟁을 할 것을 종용한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페미니즘'은 혼잣말과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진정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있었다면 여성들이 메갈리아에 이토록이나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을 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신여성부터 메태지까지

디자이너사이드 '메르스 갤러리'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메갈리아는 주로 여성혐오 게시물의 미러링, 소라넷 폐지 운동, 여성주의 캠페인 진행 등을 진행했다. 그 중 '미러링'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는 남성중심사회의 젠더기득권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여성, 여성에 의한 언어 전유가 되었다. 미러링이 등장했을 때 기대했던 남성들의 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메갈리아의 표현 방식이 거칠고 정치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초라한 남근다발²⁾의 유례없던 부정적인 '반응'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큰 수확이었다. 묵묵부답에 방관으로 일관하던 그들이 가울로 그들의 추한 모습을 비춰주니 그제야 반응했던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기처럼 만연했던 여성혐오를 불편해하고 자신의 여성혐오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2016년의 남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메갈리아는 이미 공중분해된, 실체 없는 집단이다. 메갈리아는 소수자 비하 발언 관련 문제로 의견이 나뉘어져 이용자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고 지금은 아예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 메갈리아4, 위마드 등은 모체가 메갈리아인 페이지일 뿐 메갈리아가 아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여성들에게는 "너 메갈이지?", "너 메태지냐?"라는 소리가 따라붙는다. 실재하지 않는 집단을 상징하고 입맛에

2) '일도 여러 가지 할오면 발줄이 되듯 그 초라한 남근들이 다발로 붙어 큰 승리를 거는 모양이다.'(신종원, 매일신문, 20160728)

맞지 않는 자들에게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이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오빠들의 눈 밖에 났던 한국 여성들에게 수식되던 각종 단어들을 연상케 한다. '김치녀', '된장녀', '양공주', '모 - 던길', '신녀성' 등은 '메갈리언' 혹은 '메탈지와 맥'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치와 허영이 가득하고 문란하며 감히 먹물까지 먹은, 다루기 힘든 여성들은 모두 '김치녀' 프레임에, 다루기 쉬운 여성들은 '개념녀'와 '현모양처' 프레임에 가워진다. 우예노 치즈코는 이렇게 말한다. "분할하여 통치하라" 이것은 지배의 철칙이다. ... 여성 입장에서 말하자면 남성에게 의한 '성녀'와 '창녀'의 분단지배이다(우예노 치즈코, 2012, 53p). 분할하여 통치하기에 네이밍 즉, '사회적 낙인' 찍기는 중요하다.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편견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행동적인 반응으로서 차별을 하게 된다. 젠더 기득권 눈 밖에 난 자들, 부정적 낙인이 찍힌 자들은 사회적으로 조롱당하고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관념에 지나지 않았던 고정관념, 편견, 낙인은 사회적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분할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다.

김자연과 이자혜, 그리고 이도경

실제로 메갈리아 세력은 메갈리아 지지자들에게 생계를 빌미로 위협을 가했다. 성우 김자연³⁾은 메갈리언들의 소송을 위한 모금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넥슨에서 교체 당했으며 메갈리아 지지입장을 표명한 웹툰 작가들에게는 '엑스켓 운동'이 일어났다. '너 메갈리아야?'와 같은 낙인이 계속되자 그에 관련된 기사를 공유한 양영순 작가가 논란들을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라 일축하여 독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기이한 일마저 일어난다. 성우 김자연, 웹툰 작가 이자혜⁴⁾와 마찬가지로 진중권 역시 메갈리아를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심지어는 '초라한 남근들'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나



3) 내은 시씨 개성 (글로벌뉴스)에서 '타나' 캐릭터의 목소리를 맡은 성우. 2016년 7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Girls Do Not Need A Pussy'라고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티셔츠는 메갈리아와 페이스북 코리아 간에 소송 자금을 모으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4) 서브컬처계에서 일어난 '과자를 열지마' 메갈리언에 관동하는 작가들을 겨냥해하는 캠페인.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작가들에 대해서 작품에 대한 별점 매기 혹은 별은 사이트 탈퇴 인증 등을 남겼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은 강제 중단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5) 만화가이며 '김치녀'라는 개념으로도 알려져 있다. 웹툰 사이트 글로벌뉴스에서 '미치의 세계'를 연재한 작가. 메갈리아 지지 웹툰 작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 메갈리아 지지를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악랄한 공격을 받고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다음 차 칼럼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힐 정도로 그에게는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우리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2009년 <미녀들의 수다>에 나온 이도경은 '루저'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던 시기에서 수년이 지난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하던 회사에 만원이 들어와 해고를 당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그러나 KBS 일베 기자 또는 장동민과 같은 여성혐오자들에게 일어나는 조처는 전혀 생계 위협적이지 않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 도덕적 잣대가 과연 젠더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Social Femicide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살해 행위를 '페미사이드'라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페미사이드 사건만이 여성 살해가 아니다. 위와 같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하는 생계 단절 위협 또한 가히 살인 행위라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페미사이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틀어진 젠더권력관계를 보여준다. '오빠'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남성 중심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박탈당하고 말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페미사이드 현상은 어떠한 '조처'가 취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다. 여성의 활동이 가시화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자이다.

“나는 전투적 여성 참정권자입니다. 나는 참정권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게는 사회주의가 이상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헬렌 캘러, 2001, 도로서 허번, 338p)

남성중심사회는 여성의 업적을 마음껏 재단하고 삭제할 수 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사실은 레즈비언이었던 것과 노동운동사에서 전태일이 여공들을 위해 처우개선을 부르짖었던 사실은 그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마리 퀴리가 퀴리 '부인'이라 불리듯이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은 지금껏 귀속된 존재였다. 남성중심 역사 속의 여성은 자어진 한계 안에서만 공을 세웠고

남성들의 물러라에 그쳐왔다. 페미니즘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행되어 온 것이다.

사회적 페미니즘과 같은 낙인찍기, 생계 위협, 역사와 연대 삭제 등은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여성을 더욱 더 무능화시킨다. 사회적 페미니즘을 경험하고, 목격하며 학습된 여성들은 조건 반사처럼 젠더기득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하게 된다. 그것은 다시 여성의 한계가 되어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재생산한다. 그것이 바로 젠더기득권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를 깨뜨리려는 여성들은 존재해왔고 앞으로 더욱 더 거세질 것이다.

'여성시대', '여성우월주의자', '여성주의자', '여성상위시대'라는 단어들은 만연하게 쓰이지만 '남성시대', '남성우월주의자', '남성주의자', '남성상위시대'라는 단어들은 잘 쓰이지 않는다. 이것들이 현사회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이고 당연한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십 세기 동안 사회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뤄졌던 페미니즘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21세기를 사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기분(kibun)에 맞춰 허락받은 인권운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들어야겠다. 여성들의 활동은 지금보다 더 가시화되어야 하고 보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역사에서 여성들을 지웠다면 이제는 역사를 쓰는 주체가 여성이 되면 될 것이다. 메갈리아도, 미러링도 모두 그것들을 위한 한 걸음이다. 운동의 방법이 정치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들이 정할 몫이다. 필요한 것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보탬 지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용기이다.

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Orange is the New Black> 시즌 3 2화에서 파양된 유행어, "대 문화권에서는 남의 용원을 원할보다 슬로시게요. 한국에서는 그림 Kibun"이라 부르죠." "라자아에서는 '게트'라고 불러."

참고 문헌

논문

- 강선경, 2015, 「사회적 낙인, 양성, 자아존중감이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행본

- 우에노 치즈코, 2012,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 도로시 허먼, 2001, 『헬렌 켈러』

신문기사

- 정희진, 한겨레, 20160730, "메갈리아는 일베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754513.html>
- 진중권, 매일신문, 20160728, [진중권의 새論 새책] 나도 메갈리아이다
URL: http://www.inaen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6285&yy=2016
- 연합뉴스, 20160629, 1인가구 500만 시대...맞벌이 '기러기 부부' 증가세(종합)

조심하고 지켜야 할 여성은 없다

- 2016 여성혐오, 여성이 말하는 여성을 듣다

엘 사

2016년, 여성혐오의 한 해였습니다. 여성혐오적 사건이 넘치는 한 해이기도 했지만 여성이 여성혐오를 고발하고 분노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기나긴 여성혐오의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기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의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계기에는 2016년 5월 17일 새벽 변화한 강남역 한복판에서 일어난 또 한 번의 여성살해(일명 '강남역 살인사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이내 '조심해라', '지켜줄게' 혹은 '경찰이 묻지마 살인이라는데 왜?', '남혐', '남성을 잠재적 살인자로 몰지 마라' 등의 반응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 태어난 이후 여성들은 항상 경계하는 삶,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조언하는 일은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말하는 여성의 삶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를 이야기들은 우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함께 대학 캠퍼스를 거니는, 함께 학식을 먹고 텀플을 할지도 모르는 학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직접 겪어왔고 여전히 마주하는 일상의 한 조각입니다.

*오픈너는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위협과 그 위협으로 인해 어그러진 일상에 대해, 그리고 5.17 여성 살해,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의 삶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오픈너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통해 받은 사연들입니다.

1.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장난을 무서워했다. 아빠의 장난이란 보통 엄마와 나를 악 올리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또 한바탕 해야 정신 차리지?"

"조만간 또 피바람이 불겠구만."

웃음기 어린 농담에 엄마와 나는 웃지 못했다. 나에게 그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경고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빠에게는 전적이 있었다. 청소를 하루 걸었다고 가슴기를 부수고, 장롱 문을 박살 내고, 저녁 식사에 국을 내오지 않았다고 죽일 것처럼 욕을 했다. 어릴 적 내 별명은 '울보'였다.

언젠가 근 일 년 동안 장에 남성에게 위협 받았던 적이 있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그 남성은 나와 마주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왔다. 나는 그를 피하기 위해 편의점에도 들어가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척을 해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도 해 봤다. 정작 도움이 되었던 건 나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등 뒤로 숨겨주었고, 그는 돌아갔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 남성이 무서워서 지하철역에 가지를 못 하겠다고 말하면 언제나 장애인을 비하하지 말라는 비난이 되돌아왔다. 아빠는 공포에 질려 말을 못 잇는 내게, 왜 알잖아 보였냐며 길거리에서 화를 냈다.

하루는 학교가 일찍 끝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압구정역에 들렀다. 구경해 보고 싶었던 편집샵에 들러 옷을 몇 벌 사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갔다. 출구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데 한 남성이 내 옆에 딱 붙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기계처럼 억지로 내 발걸음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예전에 겪었던 장에 남성의 모습이 떠올랐다. 소름끼치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중년 여성들의

뒤에 숨어 내려갔고, 그 남성은 나를 흘깃 보더니 시끄럽게 발을 구르며 내려갔다. 그러고는 욕을 지껄이고 사라졌다.

5.17 살해 범죄 이후 여성들에게 자유가 제한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는 당연히 주어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총무로 역 에스컬레이터 한쪽에는 '치마를 가려 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알잡아 보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를 알잡아 보고, 치마 속을 카메라로 찍어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 용용이 !

2.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온 날이면 어디 가느냐고, 데이트 가느냐고 묻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면 어디 아프냐고, 피곤하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술자리에서는 '내가 있으니 생기가 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따르는 술은 더 맛있다고 합니다.

5.17 여성살해 사건 5일 뒤, 강남역 그 현장에 들렀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닌데도, 언젠가 지나쳤던, 친구들과 만나곤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나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심히 다니라 했습니다. 늦은 시간 밖에 다니지 말라 했습니다. 평소엔 걱정말라며 엄마를 안심시키던 내가 그 사건 이후 내 몸가짐을 달리 하도록 검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술자리에서 일찍 나오고, 주변을 경계하며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 상상애 !

3.

저는 초중고 모두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리고 제가 느꼈던 여성은 약하기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여자 아이가 같은 반 남자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병원을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남자 아이들과 같은 반에서 말을 섞고, 선생님께서 내 주시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옆에서 그 친구를 보는 것이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중학교 때 역시 학교 내에서 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초등학교 때 친구에게 몸살 짓을 한 그 애들도 몇 명 포함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당사자로서 겪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건 큰 위협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선 조금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풍평회라고 해야 하나요. 예쁜 여자, 몸매가 좋은 여자를 7788('찌찌뽕뽕'이라는 뜻)이라는 은어를 써서 칭하더군요. 그렇게 여자를 쫓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풍평회가 대학교에 와서도 이어지고 있더군요. 학과 특성상 남녀 비율이 7:3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센 수위로 여학생들을 풍평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말 속에는 "A는 존나 육덕져 막 봐도 가슴이 C컵 정돈 돼" 등 치마 입으로도 뺄 수 없는 비속어와 음담패설이 난무하더군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감수해야 돼." 저는 너무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화장실을 갔던 여성이 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선 '화장실녀'라는 네이밍과 함께 늦은 새벽시간까지 유흥가에 있었다는 상황을 부각했습니다. 가해자에겐 건설했던 신학생이라고 칭했죠. 해당 기사에는 여성을 태그해 '늦게 다니지 말랬지?' 따위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는 마치 피해여성이 덜 조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또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해친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남성이 여성을 해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과거의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거나 내가 귀가하고 싶을 때 귀가하는 것을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며 조심해왔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사건 이후 '여자가기 때문에 감수해야 해'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덥다. 핫팬츠에 민소매를 입고 나가야겠다. 오랜만에 하는 밤 나들이니까 레드 립도!"

여성도 아무런 위협 없이 여성이 하고 싶은 일을 일상처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돌고래 !

4.

남자친구랑 싸우고 결국 화가 나서 내가 자리를 뜨고자 했을 때, 내 팔목을 붙잡고 기어코 나를 다시 자리에 앉혔던 적이 있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전까지는 남자가 여자의 팔목을 확 낚아채서 안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에 엄청난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느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건 정말 엄청난 폭력이었고 나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서로 화가 나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의 의지로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상태. 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힘을 직접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싫으면 충분히 뿌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내 남자 친구는 내 손목 하나 잡는 걸로 날 압도할 수 있구나. 그 경험은 내 연애가 계속되는 동안,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불쑥불쑥 튀어나왔어요. 내가 그에게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겨우 손목 잡았던 일 가지고 너무 멀리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로 나는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 때 그가 손목을 잡고 자리를 못 뜨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실행에 옮겼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반면, 나는 그 행동을 거절했고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방금 전 말에서 '손목을 잡고 자리를 못 뜨게 해야겠다' 대신에 올 수 있는 행동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나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각종 여성대상 범죄는 다 똑같아요. 가해자는 여자를 죽이겠다고, 강간하겠다고, 폭행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실행에 옮겼고 이랬어요. 피해 여성은 반항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였거나 반항했어도 그 행동은 가해하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여성이 뭘 더 어떻게 조심하겠어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죠? 평상시에 날 지켜준 다던 남자친구도 결국 날 억압하는데 힘을 쓰는데, 싫어요 안돼요 하지마세요 하는 게 확실히 효과는 있대요? 듣는 사람이 싫어요 안돼요 하지마세요를 자기 입맛에 맞게 다르게 해석하는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의 내 삶이 그다지 달라진 거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똑같으니까요.

1억 명

5.

생각해보면 내가 여자라는 성별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정글에 맨몸으로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았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기억나지도 않는 '밤늦게 다니지 마라. 위험하다. 옷 가장을 바르게 해라, 싸보이게 다니지 마라, 나쁜 아저씨(?)를 조심해라, 물카 조심해라' 등의 각종 [조심해라]라는 충고 혹은 조언은 나의 일평생을 따라다녔다. 이 말은 나에게 위협이 되기도, 나에게 대한 걱정과 애정으로 다가오기도, 귀찮은 잔소리로 다가오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일평생 세뇌 당하다시피 한 '조심해라'라는 충고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등학교 때 내 교복 블라우스, 더 정확히는 내 가슴에 눈을 고정시키고 나를 계속 따라다니 아저씨를 버스에서 마주해야만 했다. 가장 변화한 장소 중 하나인 홍대입구역 바로 앞에 있던 드럭스토어에서 내 치마 속을 찍었지만 그 범칙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던 조치라고는 '그래도 속바지를 입어 다행이다.'라는 자기위로였고,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이었다. 학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는 내 허벅지를 은밀하게 만지는 손을 완곡하게 뿌리치는 행동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 많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이상의 대치는 나에게 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노소(老少)를 막론한 그들에게 최룡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최룡이 대상이 된 이유는 사근사근한 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어린 여자 알바생이었기 때문이었다. 지하철역에 가만히 서있는 내게 버럭 화내는 할아버지도 만났었다. 내게 역정을 내셨던 이유는 그날 할아버지의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던 적은 한 순간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를 비롯한 지극히 평범한 여성들은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했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았다. 적어도 5.17 여성 살해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다. 소라넷을 비롯한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도 그 급한 와중에 공중화장실 나사못 하나 하나, 변기 뒤, 타일 사이를 살살이 뒤져가며 조심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조심해라' 뒤에 감춰진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여성이 조심해야 할 일은 애초에 없어야 했다.

1루 시

이 밖에도 글에 도움을 주신 '와시'님, '안녕'님, '또또'님, '아마추어볼펜러'님, '헬페미'님 외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수많은 동국의 학우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스터후드 라이딩 (Sisterhood Riding)

해 초

고발 이전

한참 트위터를 통해 00_내 성폭력이 폭로되던 시기였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똥을까봐 불안해 하며 트위터 창을 열었고, 피해사실을 읽다 현기증이 나 트위터를 잠시 지우기도 하며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피해 사실을 아는 같은 피해자인 친구였다. 친구는 함께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트위터 계정, 단톡방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로 뭉쳤다.

피해 당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가해자목인이 내게 온갖 성폭력을 행한 후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의 어긋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잠자리를 미안해하며 거절하자 가해자목인은 내 사과를 받아들이며 이해한다고 위로했다.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친구에게 털어놓고 서도 가해자목인에게 죄책감을 가졌다. 그가 해야 했던 수많은 변명들을 대신 해가며 그를 두둔했다. 그 때는 나와 가해자목인 사이에 얽히고 엉킨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없었다.

고발 진행

계정에 피해 사실을 올린 뒤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상황을 자주 상상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항상 보았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저 여성이기 때문에 듣는 말들,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어떤 2차 피해를 받았는지 살아오며 저절로 습득했다. 상상한 일들은 예지(豫知)한 것 마냥 대부분 이루어졌다. 가해자목인이 내게 한 말이 기사 헤드라인에 쓰이거나, 꽃땀이 아니냐는 댓글, 자극적으로만 해석된 인터뷰까지 다양한 2차 피해들이 나왔다.

우리는 서로 타지에 있으면서 끈끈하게 붙어있었다. 가해자목인이 계정을 만들어 사과했을 때도, 우리가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자 역물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나올 때도 우리는 약속한 듯 서로를 찾았다. 함께 생육을 퍼붓기도 했고 위로도 했다. 하고 있는 일만 끝나면 예쁜 카페에, 맛집을 함께 가서 돈을 진탕 써버리자.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금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와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에게 하는 응원은 곧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와 다른 무언가가 존재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 당황해하는 나와는 다르게 친구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대책을 세우며 이겨나갔다. 문득 그들의 용기에 내가 편승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내가 이겨내야 할 것은 가해자목인이 아닌 불분명한 형태의 무엇들이었다. 우리 계정은 2000 가까이 리트윗이 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덕에 기사화도 되었고 가해자목인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기도 했다. 나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 사례는 터져 나왔고 그중에는 가해자목인의 압박에 못 이겨 고발 글을 지우기까지 했다.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다. 사실 힘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또 다른 무력감이 나를 잠식했다. 애인은 자신이 위로가 되지 못할까 전전긍긍했고, 작은 언론사에서 일하는 친구는 더 도움 일이 없느냐 물었고, 기사글을 보고 나인 것을 알아차린 선배와 친구는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사과 문자를 보냈다. 사과를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구도가 어그러졌고 나는 그 속에서 그들에게 또 다른 미안함을 품었다. 나는 내 생활을 지켜야 돼. 하며 수많은 의문을 지워냈다.

질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고 곧 휘발되기를 반복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밀린 과제를 했고 회의를 했고 책을 읽었다. 내 생활을 지키려면 감정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나는 점을 알고 오래 잤다. 얼굴은 텅텅 부어도 개운하지는 않은 나날이었다. 다른 방식

으로 또다시 생활이 망가져버린 것이다.

생활은 사실 말 그대로 흘러가는 내 시간을 뜻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최대한 내 생활에 넣지 않기 위해 시간을 개조했고 그를 억지로 밀어내는 동안 그 괴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이유는 가해지목인과 연관되어 있고 나는 가해지목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하니 악순환이었다. 나는 그와 나의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절대 그를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내가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처음부터 되짚어보았다. 왜 내가 그를 가해자로 지목했을 때 곧바로 문단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는지를. 가해지목인은 내게 문단 자체였다. 그는 내게 몇몇 문인들을 거론하며 자신이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거대한 사람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곤 성성은 인간이 끊임없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면 안 된다고 내 소설을 평했다. 또 어떤 평론가는 내게 “넌 젊고 예쁜 여자라서 다른 문인들이 소설을 협평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격아온 수많은 일들로 무의식 중에 깨달았다. 문단은 나 같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구조라는 것을 말이다. 가해지목인은 내가 겪어 온 문단의 축소였으니까.

그다음은 쉬었다. 나는 계속해서 글을 썼고,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싸우고 있다. 이때까지 타인의 용기에 편승해왔다면 이제는 동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현재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파편으로 흩어진 기억들을 끌어내며 진술을 마쳤다. 가해지목인은 나의 진술을 전면부인했다. 자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복수심에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는 그의 도움 없이도 잘 쓰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처벌은 절대 책임의 완성이 아니다. 이것은 숫자로 이루어진 채무관계가 아니니까.

여전히 그에 대한 고발은 진행 중이다. 이때까지 우는 날보다는 화를 내는 날이 더 많았고, 화를 내는 날보다는 웃는 날이 더 많았다. ‘피해자’답지 않아도 좋다. 나는 당연함이라는 것을 잘 준비가

되어있고 그것을 함께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다.

아직 우리는 진행 중이다. 우리라는 말이 누구를 포함하는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자주 고민했다. 우리라는 단어는 다수를 쉽게 하나로 묶는 만큼 개인의 정체성이나 고민, 문제를 식체시키기도 하니까 말이다. 나는 ‘우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 나를 정체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쉽게 식체시켰다.

내가 말하는 우리, 그 속에 조건은 없다. 나와 함께하는 친구뿐만이 아닌 최소한의 유대로 연결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달릴 것이다. 길을 잃거나 잘못 들거나 지치더라도 누군가와 같이 있다면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아갈 것이다.

Sisterhood¹⁾ riding.²⁾

1) Sisterhood : 어떤 사상이나 목표를 공유하는 여성연대를 뜻한다. 어떤 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많은 이들의 관심, 응원, 후원 덕분이다. 우리는 계속, 함께, 달려나갈 것이다.

2)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Sisterhood Riding’은 ‘Red riding hood’들과 ‘빨간 망토’ 천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4

대중문화비평

〈미씽〉: 여성들의 디스토피아

와 정 창

스크린 앞에 선 여성들

2016년, 많은 여성 영화들이 스크린으로 진출하며 영화계에서 여성 영화가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 2015년부터 등장한 '메갈리아'를 시발점으로, '강남역 살인사건(517 페미사이드)' 등 각종 여성혐오적 사건들이 터지며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빠르게 확산된 페미니즘으로 인해 출판계에서는 페미니즘 서적 판매량도 132.6% 급증했다.¹⁾ 영화계 또한 남성중심적인 스크린에 대한 불만으로 '알탕영화'²⁾, '개저비열'³⁾, '브로맨스'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이를 해소해 줄 '사이드' 같은 여성 영화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에 작년 개최된 제18회 서울국제

1) 김홍운, *비즈니스*, 2016 출판계 1인 가구·살달·직유·페미니즘 서적 판매량 급증, 이데일리,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cdy?SCD=7231&newsid=04103286633875568&DCD=A403&OutLinkChk=Y>

2) 영화 속 배역이 대부분 남성들이 영화를 이끄는 것.

3) 남성을 시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4) 남성들끼리 매우 친밀한 관계.



• 영화
《미씽: 사라진 두 여자》 포스터
• 출처
메가박스(주)플러스엠

여성영화제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는데, 제작년대비 관객 수가 2배가 넘었다고 하니 2016년은 가히 여성 영화가 주목받았던 해라고 말할 수 있겠다.⁵⁾ 김민희, 김태리 주연의 《아가씨》는 누적 관객 수 428만 명을 기록했고, 김혜수 주연의 《굿바이 싱글》은 누적 관객 수 21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렸다.⁶⁾ 이밖에도 《비밀은 없다》, 《죽여주는 여자》, 《우리들》, 《연애담》 등 많은 영화들이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총무로 여배우 기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많은 여배우들이 남성중심적인 영화 시장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배우 손예진은 "현재 남성중심 사회나리오가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배우들에게 일종의 억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현재 한국 영화계의 상황을 꼬집었다.⁷⁾ 이처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주류 대중문화 흐름을 깨고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엄지원, 공효진 주연의 영화 《미씽》은 워킹맘과 보모라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모성애'가 아닌 두 여성의 '감성 미스터리'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흔히 어머니, 그리고 아이의 실종은 '모성애'로 귀결되는 일반적인 장치이건만, 아이의 실종 사건을 둘러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왜 '미스터리'로 내세웠을까.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연희 감독은 인터뷰에서 "주인공이 여자라는 이유로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 주인공을 남자로 바꾸고 다른 여성 캐릭터를 집어넣어 치정극 쪽으로 수정하란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⁸⁾

줄 없는 번지점프를 뛰다



•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지선의 모습
• 출처 네이버 영화



• 지선의 아이를 데리고 떠나려는 한때

영화 《미씽》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지선(엄지원 분)과 한때(공효진 분)의 공통점은 가부장제의 표상인 어머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인물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무언가'를 강요받는 인물들이다. 그것은 모성애가 될 수도 있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해 아이를 낳는 도구로서 결혼해야만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영화의 주축이 되는 아이의 실종은 극적인 드라마를 재현할 장치일 뿐이다. 사실상 그들의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이다. 가부장제라는 억압 기제 아래 속박되어 있는,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이다.

이 두 여성은 기존의 사회가 제시한 이상향과 거리가 멀다. 지선은 의사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하청업체에서 을, 병 취급을 당하며 일을 한다. 정작 그 모욕의 대가인 월급은 보모인 한때에게 다 쏟아 붓는 실정이다. 지선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아이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충돌한다. 사회는 지선에게 이 두 가지 모두를 강요한다. 이 두 정체성은 남성중심적 사회 아래에서,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적인 정신적 노동을 수반한다. 흔히 '아버지'가 권력자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해있어야 할 '어머니'와 '자식'이어야 하지만, 지선은 거부한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어머니나, 노동자나'라는 정체성을 택할 것을 강요받거나, 택할지 못할 바에야 둘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정희진, 2013). 딜레마에 빠진 지선에게 걸려온 회사의 전화는 다시 이 문제를 허무하게 여성의 탓으로 되돌린다. "오늘 애가 이파서 늦은 거야? 이래서 내가 애 엄마들이랑 일하기 싫어요. 돈 주고 지 새끼들 사정까지 봐

5) 박재환, 160000, [TV특종]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통영국제 영화제, KBS미디어, URL: <http://entertain.naver.com/read?aid=438&aid=0000010061>

6)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제공

7) 장부름, 161208, 여성 배우의 캐리커처 '말하기'가 반갑다, 여성신문, URL: <http://www.womennews.co.kr/news/110218>

8) 서소담, 161128, [팝인더뷰] '미씽' 감독 '쇼-퀵' 배우 바꾸라고, 김효진-엄지원 큰 힘, 헤럴드팝, URL: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30961281694376238677_1

줘야 해요.”

한매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 출신으로 한국어가 서툴지만, 지선에게 입주 가정부로 고용되어 돌봄 노동을 제공한다. 한매는 유괴범이기 이전에 지선과 마찬가지로 고통받은 여성이다. 한매의 남편은 ‘한국어를 배워서 도망갈까봐’ 한매를 가둔다. 강제로 잘려진 머리카락, 그리고 머리카락에 가려진 한매의 얼굴은 명투성이다. 한국 농촌 가정의 외동아들과 결혼해 아들 낳기를 강요받지만, 결국 딸을 낳는다. 허나밖에 없는 자식이 큰 병에 걸려도 ‘딸’이라는 이유로 병원조차 갈 수 없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의 장기 일부를 팔아 돈을 마련하지만, 밀린 병원비와 보호자(아버지)의 동의가 없어 결국 병원에서 쫓겨난다. 결혼이주여성인 한매는 어머니라는 자국히 ‘사적 영역’에 갇혀있어야만 했다. 한매가 낳은 자식은 남편(남성)에게 공적으로 ‘승인’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도 보호받을 수 없었다. 남성을 경유해야 비로소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내려고 발버둥 쳤을 때, 아이러니한 상황들은 더욱 깊게 살을 도려냄으로써 지선과 한매를 무력하게 만든다. 이 여성들의 투쟁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극단적으로 연출된 이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유효하기 때문이다.



-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지선의 모습
- 출 처 네이바 영화

수장(水葬)되어버린 여성의 연대

지선과 한매의 연대는 아이의 실종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보이는데, 필자가 제일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실종 전 이들의 모습이다. 한매가 비록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서 지선에게 접근해왔다 한들, 그것을 오로지 한매의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매는 아픈

자식을 위해 장기까지 척출하면서 돈을 구했지만 이들의 법적 보호자인 남편은 무책임하게 상황을 회피했고, 결국 병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한매가 ‘강탈’당한 그 병실은 의사인 지선의 남편의 권력을 경유해 지선과 지선의 아이에게 도착한다. 고통은 다시 돌아가고, 분담된다.

과거 회상 장면으로 잠깐씩 나오는 이 둘의 모습은 꽤 다정하다. 친해 보이기도 한다. 같은 한 집에 살면서 밥을 함께 먹고, 여름휴가를 함께 계획하고, 아이를 같이 돌보고, 심지어 아이의

둘에 기념사진을 같이 찍기도 한다. 이 둘은 ‘가족’ 같이 생활한다. 가족과 다름이 없다. 이 둘의 행동은 기존의 가족 생활양식과 거의 흡사하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타인이 제일 가깝게 살며 생활을 나누며 서로에게 스며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연대는 충분히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 속 한매와 지선의 연대는 결국 파괴되었다. 그들이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남성’들에 의해 말이다.

이 둘은 영화의 큰 축인 ‘실종’의 서사가 끝나기 직전에 서로를 다시 확인한다. 그들은 바다에 빠지며 태초(太初)로 돌아가는 듯 감렬한 인상을 주는데, 여기서 바다는 양수(羊水)다. 거기엔 워킹맘도, 중국인 보모도 아닌 ‘인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선은 한매에게 손을 내밀지만 한매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끝내 바다 속에 남게 된다. 가부장제 안에서 겪은 학대로 인해 한매의 세상은 무너졌다. 남편의 죽음을 청탁하고, 아이는 결국 죽었다. 지선의 아이가 바다 밖으로 나와 눈을 뜬 지선을 바라보며 걸어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영화는 현재 남성중심적으로 이뤄지는 관계들로 인해 여성들의 연대는 소외되고, 지워짐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 또한 그렇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뤄진, 지선과 한매가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관계들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관습을 거부한 여성은 소멸되어 수장(水葬)된다. 영화의 결말은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곳은 여성의 디스토피아⁹⁾일 뿐이다.

9) Dystopia, 유토피아의 반대어.

2016년의 한국, 2076년의 디바

- 2016 게임계의 여성혐오를 돌아보며

빙 봉

참고 문헌

단행본

- 정희진, 2013, 『페미니즘의 도전』

신문 기사

- 강루분, 161208, 여성 배우의 페미니즘 '말하기'가 반갑다, 여성신문, URL: <http://www.womennews.co.kr/news/110218>
- 김용운, 161205, '2016 출판계 1인 가구-상당-치유-페미니즘 서적 판매량 급증, 이태일리,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ly?SCD=J131&newid=04103286612875568&DCD=A403&OutLinkChk=Y>
- 박재환, 160609, [TV특종]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풍성하게 마무리, KBS미디어, URL: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38&aid=0000010061>
- 이소담, 161128, [팝인터뷰]미필 감독 "女→男배우 바꾸라고, 공효전-엄지원 큰 힘, 헤럴드팝, URL: http://pop.heraldcorp.com/view.php?uid=201611281604379239677_1

기타

- 한국영화진흥위원회, 2016 연도별 박스오피스



• '서든어택2'의 실제 게임 스크린샷

지난 2016년 7월, 오버워치를 누르겠다는 대단한 포부와 함께 정식 오픈한 〈서든어택2〉가 출시되자마자 게임은 여성상품화와 성차별로 논란이 되었다. 서든어택2의 여성캐릭터들은 포르노를 연상시키는, 예를 들어 가랑이를 활짝 벌리거나 엉덩이를 쭉 빼고 엎드리는 모션을 취하고 야한 표정을 지으며 죽는다. 일부 남성유저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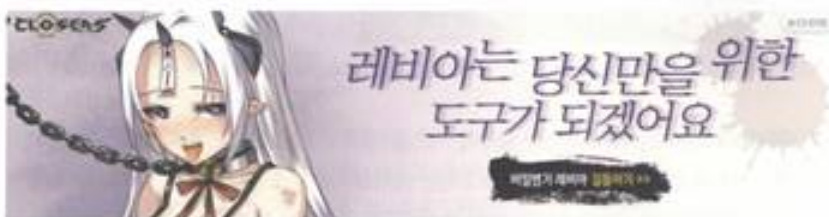
여성캐릭터가 죽는 모션에 대해 신촌팔라네, 섹스돌 등의 이름을 붙이고, 심지어 죽은 여성캐릭터의 생식기에 총을 갈겨 피를 튀기게 하고서는 생리혈이라고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유저들이 여성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은 마치 소라넷으로 가시화된 여성대상 몰래카메라 범죄와 상당히 닮아 있다. 유저들은 여성을 관음적 시선으로 성적 대상화하여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 따위를 유희거리로 삼고 있으며, 게임 서든어택2의 설정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서든어택2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가장 성차별적인 동시에 제일 인기 있었던 여성캐릭터 둘을

없어졌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지 문제가 되는 캐릭터를 없애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회사는 또한 '선정성'에 대한 사과를 덧붙였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다른 '선정적인' 모습의 여성캐릭터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사실상 그들이 선택한 해결방식은 본질적 문제인 '여성혐오'를 개선하고자 할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섹시(해야)한 여자 캐릭터에 대하여

서든어택2가 논란이 되면서 각종 매체들은 서든어택2가 유난히 이상하다는 식으로 사건을 설명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주로 개연성 없는 과도한 노출, 야한 자세 등이었다. 물론 서든어택2가 노골적인 편은 맞지만 사실 다른 게임들도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서든어택2 사건에 대해 떠돌았던 '여성혐오보다는' 안 풀리게 만든 것이 문제다'라는 말은 게임 산업에서 성상품화가 당연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남성이 주류이자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상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게임 같은 남초문화에서 성상품화와 성적 대상화는 암묵적인 관습처럼 이어져 왔다. 여성캐릭터가 주체가 되는 게임이 드문 것은 물론, 게임의 돈벌이를 위해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되며 타자화되어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유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캐릭터는 많지 않다. 심지어 일부 게임들은 그저 '잘 팔린다'는 이유로 아동성애, 강간 등의 요소를 집어넣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넥슨의 12세이용가 게임 클로저스에는 '글래머러스한 13살 소녀'가 두 손을 결박당한 채 섹슈얼한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며, 전체이용가인 메이플스토리2에는 망사스타킹을 신은 바니컬이 마스크트로 등장한다.



• '클로저스'의 미성년 여성캐릭터 홍보 광고

실제로 상당수의 여성 유저들은 자주 고민에 빠진다. 모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전투를 하면서도 굳이 여성캐릭터만 왜 하나같이 노출이 심한지, 왜 공격을 당할 때 신음을 야동처럼 질러대서

캐릭터보이스 불륜을 확 줄이게 만드는지, 나 역시 이런 점들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해당 게임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컴플레인에 대한 타당한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여성유저에 대한 차별들

게임에서의 성차별과 여성상품화는 게임내용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게임을 소비하는 여성유저에게까지도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남성문화가 주류인 게임에서 여성유저는 끊임없이 남성에게 의해 대상화되는 이등시민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여성유저들은 게임 상에서 자신의 성별을 숨긴다. 게임에서 '여성'이라는 성별이 들어나면 자신의 실력은 상관없이 '여자는 게임을 못해' 혹은 '여자답지 않게 잘 해' 등의 멘트를 들거나, '너 보지였나?', '얼굴(몸매)는 어때? 사진 좀 ㅋㅋ' 따위의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일어난 '계구리 사건'은 여성유저에 대한 열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계구리'라는 한국 오버워치 유저는 당시 오버워치 통계에서 승률 80%를 가진 실력자였다. 당시 그녀와 경기를 한 프로게이머팀 디지니스는 계구리에 대한 핵 의혹을 공론화했고, 이 사건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 이후 계구리 선수가 여고생임이 밝혀지자,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여자가 게임을 잘할 리가 없다.', '핵을 썼다는 게 확실해졌다.'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별이 알려진 이후 핵 '의혹'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또한 계구리 선수는 성별이 밝혀진 후 심각한 비난과 위협에 시달렸다. 계구리 선수를 고발한 디지니스의 한 멤버는 '만약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계구리 집 앞에 칼 들고 찾아갈지도 모른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개중에는 외모평가나 성희롱, 성폭행 협박도 있었다. 이처럼 계구리 사건은 게임계의 여성유저에 대한 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대중이 유저 사이의 성차별과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만든 방아쇠 같은 사건이었다.

통계적으로 MMORPG게임유저의 30~40%정도는 여성들이다. 미국의 경우, 모바일게임의 평균 50% 이상이 여성유저라는 통계도 있다.⁹⁾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게임을 남성의 것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으며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존중받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게임의 성상품화와 성차별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성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 위해서는 불편한 성상품화와 차별을 견디거나 모른 척 넘어가야만 한다.

⁹⁾ Women Now Make Up Almost Half of Gamers, (The Wall Street Journal)
http://www.wsj.com/articles/gaming-no-longer-a-male-world-1408463211

여혐이 없으면 게임이 망한다고?

다행스럽게도 해외의 여러 게임들은 이미 젠더이슈를 비롯한 각종 소수자 인권문제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이미 페미니즘적이거나, 혹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약 20년 전 '롤레 이더'라는 게임의 캐릭터 '라라'는 모험가라는 설정에 어울리지 않게 탱크탑과 팬티 같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다. 가슴이 흔들리는 모션이 유독 두드러지던 라라는 강하지만 섹슈얼할 것을 요구 받는 일명 섹시여전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발표된 신작부터 라라는 변화 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스트 작가가 영입되고부터 트레이드마크였던 탱크탑과 핫팬츠 대신 모험가와 잘 어울리는 복장으로 등장했다. 섹슈얼리티에 중점을 두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라라의 스토리 또한 탄탄해졌다. 새로운 라라는 과거와 달리 게임이 흘러감에 따라 성장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마치 법칙처럼 여겨졌던 섹시한 여캐의 요소를 버려져 인간적인 모험가 캐릭터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성상품화를 벗어난 여성캐릭터 라라는 역대 최고의 흥행을 이끌었다.

게임 제작자들이 돈 때문이라는 편리한 변명으로 도덕적 잣대에서 벗어나기에는 게이머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다. 많은 게이머들은 이미 젠더의식이 개선된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도 그런 게임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성혐오를 이용한 마케팅은 아직 돈이 되며, 일부 게임들은 흥행을 위해 전례 없는 성상품화 경쟁을 하기도 한다. 게임의 흥행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는 마케팅은 어쩔 수 없다는 게임업계의 주장은 결국 여성의 존엄과 인간을 팔아 쉽게 돈을 벌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높아져가는 젠더 인식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국내의 많은 게임들은 결국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여성들

남성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게임업계가 조금이나마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수많은 게이머들, 특히 여성들이 끊임없이 게임의 여성혐오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메갈리아가 등장하며 페미니즘 불이 일어난 작년부터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게임의 여성혐오에 대해 지적하고 게임회사에 단체로 항의, 보이콧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게이머나 여성 게임 종사자를 탄압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그리고 지난 7월, 한국판 게이머게이트²⁾라고 BBC 등 외신에도 소개된 여성차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바로 넥슨의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이다.

논란은 넥슨 '클로저스'에서 '티나'역 목소리를 맡았던 김자연 성우가 페미니즘 티셔츠를 인증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자연 성우는 'Girls do not need a prince'라는 온건한 페미니즘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트위터에 올렸다. 이 티셔츠는 메갈리아4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후원하면 주는 것이었고, 이후 김자연 성우의 트위터에는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것이냐', '너 메갈이냐'는 비난들이 쏟아졌다. 곧 '남혐 성우'로 낙인찍힌 김자연 성우에 대한 악플과 해고 요구는 점점 거세졌고 넥슨은 사건 바로 다음 날 성우를 계약해지하기에 이르렀다.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성차별적인 사이버 폭력이자 부당해고였다.

김자연 성우 사건, 계구리 사건을 비롯해 작년 한 해 동안 게임계의 페미니즘 억압 사건들은 오히려 여성유저들을 단결시키고 페미니즘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만들었다. 페미니스트 게이머들은 오버워치 내의 여성혐오 발언을 아카이빙하는 트위터 계정 '옹치하는 여자들'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페미니스트 게이머들의 모임 '전국디바협회' 등의 깃발 아래 시위와 행진에 참여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버워치 게임 설정처럼³⁾ 2076년 한국에 디바가 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등장한 '전국디바협회'는 독서모임·여성 오버워치 경기 등을 기획하며 지속적인 페미니스트 게이머들의 연대와 참여를 이끌고 있다.

여러 노력에도 게임 내 여성혐오는 여전히 심각하고 여성 게이머들에게는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따르기도 한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게임 내 남성중심적 문화가 단번에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게임사회 내 감수성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예전에는 그냥 묵인되었을 게임유저 간의 여성혐오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며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디긴 하지만 게임계의 여성혐오와 싸워가는 페미니스트 게이머가 늘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린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나 역시 여성도 동등하게, 불편함 없이 게임을 즐기고 소비하기를 기대하는 소비자로서 게임 내 여성혐오와 싸우는 모든 목소리와 행동에 지지를 보낸다.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게이머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게임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본다.

2) 비록 게이머게이트가 게임업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성차별적 욕설, 협박, 신상털이를 자행했던 사건, 조이 칸이라는 여성게이머에 대한 루머(게임에 대해 좋은 리뷰를 썼으라고 코타쿠 기자와 마찰을 빚었다)가 유보되면서 무분별한 성차별범죄가 비주류였다.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이 칸을 비롯한 여성들은 신상털이 및 협박으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 오버워치의 사내지 매거진 2076년으로, 한국인 여성 코로게이머이자 군인인 송하나(디바)가 맹목으로 등장한다.

편집 후기

■ 나영

오프너의 두 번째 교지가 드디어 마침내 나왔네요!(기쁨의 내적댄스XD) 지난해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재빨리 나왔어야 할 오프너 교지도 얹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두 번째 호가 무사히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교지 기다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해 같이 공부하고 글 쓰고 행동했던 오프너 친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서로의 고민에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싸워주는 그런 오프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지난해 오프너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프너가 했던 각종 캠페인, 이벤트, 오픈세미나에 참여해주시고 오프너 발간에 힘을 보태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했고 함께해서 기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프너는 계속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고민하고 글을 쓰고 목소리 내고 다함께 행동할 예정입니다! 오프너의 다음 이야기와 올해 활동들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세요.)

■ 다윤

오프너 2호가 드디어 드디어 나왔네요ㅠㅠ 1호를 낼 때는 이게 내 글인가 싶기도 하구 신기한 마음이 더 컸었는데 이번 호는 뿌듯한 마음이 더 크네요! 내 얘기를 하겠다는 다짐을 자번 호 편집 후기에서 적었는데 그걸 잘 해낸 것 같아서 무척 뿌듯합니다.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메갈리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을 들어왔었는데 글을 쓰며 그에 대한 저의

답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도 했었습니다. 오프너 분들 덕분에 교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오프너에 와서 장장대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백년만년 오프너 함께 해요~♥

■ 보민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기로 한 약속보다 늦어졌습니다 늦게 온 만큼 더 좋은 글로 마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ㅎㅎ 오프너의 출간 시기가 미뤄지며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미소지니는 계속 다른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 제가 실기로 한 글이 두 편 있었는데 시기 때문에 내기 애매해진 것들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글도 수정내지는 누락을 시키게 되었습니다ㅠ 아직 맞서야 할 것이, 일정 부분은 견뎌 내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게 슬프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어수가 된다는 건 또 좋은 일이네요! 오프너 독자 여러분, 오프너 친구들, 저의 지지자 모두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사랑하는 자신,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함께 해요! 써사빠사

■ 예은

나의 인생을 망치려 온 나의 구원자, 오프너 1호, 2016년 그리고 2017년 2월까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세상에 나온 오프너 2호, 어떻게 그 페미니즘은 내가 되었나, 오프너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늘 고마워요. 오프너를 기다려주신 독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프너를 펼쳐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페미니즘의 빨간 악이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임은

늦은 교지이기에 더더욱 소중한 2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시간이 자연되어서 지쳤지만 끝까지 힘을 내서 교지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교지 발간 과정에서 다들 글 쓰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또 우리의 교지를 기다려주신 독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만나면서 쌓인 이야기들과 논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계속해서 페미니즘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다짐). 이 세상이 평등해지는 그날까지 페미니즘을 꼭꼭 가겠습니다~!

■ 지 은

늦게나마 교지를 낼 수 있어서 기뻛요. 오프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 글이 실리는데요, 지금까지는 컴퓨터 속 파일로만 봐 왔지 직접 손으로 받게 되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오래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도 지겹지가 않았어요. 기억이 미화된 것일 수도 있지만요. 어딘가에 제 글이 실린다는 건 항상 기분이 묘해요! 내년에는 또 달라진 가치관으로 유익한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피드백 많이 해 주신 오프너 편집 위원님들, 특히 임은 언니, 그리고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한 지

정말 2호가 나오나 봐요. 지인들이 만날 때마다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대며 놀렸는데 드디어 발간! 작년에 모집했던 인원 그대로 한 해를 보내다니 정말 놀랍고 행복해요. 지치는 일상을 보내다가도 오프너 친구들을 만나면 즐거웠어요. 저도 여러분께 그런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아니었다라도 앞으로 노력할게요... 다시 한 번 재밌는 한 해를 만듭시다!

■ 혜 진

정신없었던 2016년을 보내고 드디어 교지가 나왔네요! 글을 처음 써봐서 그런지 이렇게 교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쑥스럽고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많은 초보페미였는데 오프너 하면서 페미니즘을 비롯해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세상이 넓어진 기분입니다. 전부 오프너 사랑둥이 여러분 덕분이예요~^x^♥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는 분들, 오프너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프너 [OPEN HER] 두번째 이야기

편집장 임은(신방)

편집위원 나영(사회)
다윤(철학)
보민(국문창)
예은(신방)
지은(국문창)
한재(북한)
혜진(영통)

발행처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편집위원회 '오프너'

발행일 2017. 4.

이메일 open_her@naver.com

페이스북 동국 여성주의 교지 오프너(<https://www.facebook.com/openher2017>)

연락처 010-9023-4969

후원계좌 105-910221-76307 하나은행 권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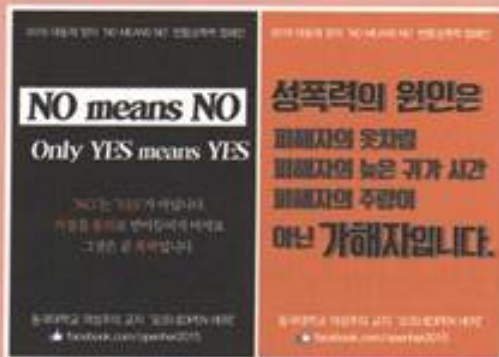
디자인 늦봄기획사

오프너[OPEN HER]?

오프너는 201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교지를 기획·제작하는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편집위원회>입니다. 학내에 있는 여러 폭력들과 차별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담아 교지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침묵하는 여성들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심어주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오프너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프너는 교지 발간 외에도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을 밝히고 혐오에 익숙한 문화를 바꾸고자 캠페인, 오픈 세미나, 여러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폐미폐미하게 되는 그날까지 오프너는 계속 말하고 설치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2016년 대동제 맞이 'NO means NO' 캠페인>



<오픈 세미나>

<한국여성민우회 '물길' 활동>



※ 다음 문구 중 당신을 분노하게 한 문항에 체크를 해 보세요.

- ☐ "여자는 조심해야지. 화장을 왜 이렇게 세게 해?"
- ☐ "너 게이/레즈야? 나는 동성애를 찬성/반대해."
- ☐ "여자는 시집 잘 가면 장땡이잖아."
- ☐ "성소수자는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 ☐ "군대를 안 갔다와서 그런가. 빠릿하지가 않아."
- ☐ "왜 이렇게 예민해? 너 꼴페미야? 메갈하니?"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오프너 교지 편집위원회 [OPEN HER]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4월 중으로 모집 공고가 페이스북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 [f 동국여성주의교지 '오프너'](#)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임은 010-9023-4969

농어업은 환경과 미래 생명산업의 뿌리입니다.
한국 농어업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습니다.



농어업 생산기반 현대화



농업물수요관리·재배역량



농지은행·농지연금·농가경제 안정



농어촌개발·도농교류



해외농업개발·국제농업협력



농업기술 연구·인재양성



농산어촌 행복출현활동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관광도시

속초



상황속의 안전 지킴이
Be Smarter, Connect Simply! HITRON



지능형 통합보안솔루션의 최강자 하이트론이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HITRON TOTAL SECURITY SOLUTION

하이트론시스템즈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 대표이사 최경택(67학번 무역학과) -